

## 복지부 “의사 근무여건 반드시 개선… 학업 · 의료에 힘 쓸아주길”

박민수 차관 “의료개혁, 젊은 의사들 진료에 집중토록 개선하는 것”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4일 “정부는 젊은 의사의 근무여건을 반드시 개선하겠다”면서 “전공의, 의대생 여러분들은 젊은 의사로서의 활력과 에너지를 학업과 수련, 의료 발전에 쏟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 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지난 13일 의대생협의회 회의에서는 집단행동이 아니라 대화의 자리로 나와 정부와 하심단회하게 논의하는 혁명한 선택을 했을 것이라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전공의와 의대생은 대한 민국 의료의 미래”라면서 “의료개혁은 미래 의료의 주연인 젊은 의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일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4일에 개최한 중앙사고 수습본부 제7차 회의에서는 국립 대병원이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필수의료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거점 병원 규제 완화 추진계획 등을 점검했다.

아울러 종인건비 및 정원 규제 완화, 기부금품 모집 허용 등 규제 완화와 제도개선 추진 상황을 논의했고 국립대병원 이관 법안 통과 즉시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조규홍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정책폐기지가 제 때 이행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각 과제별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과 필수 폐기지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라는 주장에 대해 “필수 폐기지 정책은 의료계에서 요구해 온 내용을 담

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필수 분야의 사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을 제정키로 했고 수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만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며 “무너진 지역과 필수의료 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들”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역에 의사가 없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 별을 동동 구르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내안 없이 모든 것을 거부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제안하는 어떤 내용도 경청하고 더 나은 대안은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박 차관은 “과거 의사협회 회장 등 주요 직위를 지낸 일부 의사들이 젊은 의사에게 투상을 부추기는 행위를 즉각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잘못된 사실이나 왜곡된 내용을 퍼뜨리는 행위도 멈춰달라”면서 “SNS상에서 신상털기, 윤설 등으로 공부원이나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전문가분들에게 폭력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멈춰달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인과 국민 여러분도 일부 의사의 가짜뉴스에 흔들리지 마시고 반드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책 내용의 상당 부분이 잘못 알려져 있는 것이 많으니 꼼꼼히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하며, “동료나 선배를 통해 듣는 말에만 의존하지 말고 정부 자료나 언론 보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담당 공무원에게 개별적 소통을 요구하셔도 좋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인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정부도 가족의 마음으로 젊은 의사가 더 나은 환경에서 훌륭한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향

했다.

이어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에는 진찰 시간이 짧고 약을 처방하는 주기도 짧아 진찰 시간과 처방 주기를 고려한다면 OECD와 우리나라 의료 이용량은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차관은 “중수분은 의료 개혁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필수 폐기지 정책의 신속한 이행을 점검하고 있으며, 국립대병원의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임상·연구·교육을 균형 적이고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국립대병원은 필수 의료에 투자하고 싶어도 종점원, 종인건비 규모에 가로막혀 추가 인력 채용 등 병원 여건에 맞는 투자에 어려웠던 만큼 국립대병원의 종점원과 종인건비 규모를 조속히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국립대병원 이관 관련 법률이 통과되는 대로 규모 개



태국최정상급 대학 탐마삿에서 강연 펼치는 백성현 논산시장

태국 방콕에서 2024 논산 농식품 해외박람회와 판촉 행사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백성현 논산시장은 14일 오전 11시(현지 시간) 태국 방콕에 위치한 국립 탐마삿 대학교 한국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변화와 혁신의 비전을 주제로 강연을 펼치고 있다.

##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도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가능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개정, 요양보호사 양성 확대 · 교육기관 질 개선

등을 중심으로 개정했다.

또한 외국인 중 요양보호사 교육 가능 대상을 확대하고 생체인식이 가능한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한 수강생 출결 관리 의무화 등으로 요양보호사의 양성을 확대하고 교육기관 질 개선을 통한 수강생 관리를 강화한다.

영민설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지침은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수준을 강화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앞으로도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된 지침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전자파일 형태로 배포했으며 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태선 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www.daejeontoday.com](http://www.daejeontoday.com)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신대로 26-29 대동빌딩 7층

## 청년마음건강연구소 C.LAB 씨랩



내 마음도 미리 검진하세요 [ 성향검사 / 팀빌딩 / 강연 / 온라인상담 ]

instagram 인스타 @c.lab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씨랩마음단지

### 1. 개인

온라인성향검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1대1상담  
진로상담, 성격상담, 심리상담

### 2. 팀

팀빌딩 (MBTI / 버크만)

3. 강연/강의 (학교/복지센터/센터/중소기업/기타단체)  
진로 / 스트레스 / 마음건강기획\_테마에 따른 / 성향·성격 등

C-Lab  
청년마음건강연구소

문의)  
네이버 블로그/인스타 DM  
메일 - [c-lablab\\_10@naver.com](mailto:c-lablab_10@naver.com)  
문자전화 - 070-8098-1834

# “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 감사원, 공공기관 임용·징계제도 운영실태 분석 결과 발표

공공기관이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예정자의 결격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부적격자가 공공기관직원으로 채용될 우려가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임용·징계제도 운영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일부 공공기관이 정부부처별과 달리 징계시효·양정기준을 완화해 임직원의 비위 행위 예방·처벌이 미흡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공공기관 인사제도의 핵심 제고를 위해 한국철도공사 등 279개 공공기관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공공기관이 직원의 임용 결격사유를 조사·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등 공무원의 경우, 성범죄 등 범죄 행위로 인해 일정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등을 임용 결격 사유로 인정해 임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공공기관 내부 규정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과 기타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공기관 직원 등으로 임용될 사람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273개 공공기관은 관계기관 등을 통해 결격사유를 조사·확인하지 못하고 있었고, 채용과정에서 임용예정자로부터 스스로 결격사유에 해당함이 없는지 확인하는 '자기진단 체크리스트' 등만 제출받아 그 진위를 확인하지 못한 채 그대로 임용하고 있었다.

공공기관은 직원 결격사유에 대한 조사·확인과 별도로 소속 직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경합청에 의뢰할 수 있지만, 현재 공항·전력·통신 등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일부 공공기관(76개만) 임용예정자에 대한 신원조사 의뢰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많은 수의 공공기관이 임용예정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없어 부적격자가 공공기관 직원으로 채용될 우려가 있다고

한, 범죄기록 등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임용 결격사유를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등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임용 결격 사유만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예금보험공사 등 6개 기관 외에는 임용 결격 사유를 내부 규정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과 기타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공기관 직원 등으로 임용될 사람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집검 결과, 코레일 등 14개 기관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더라도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당연퇴직 조치를 했으며, 기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소속 직원이 선고 전날부터 연차를 내 파악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복역 사실을 파악해 해임 처분했다. 또한, 한국석유공사 등 193개 기관은 음주운전 자체 확인 제도를 도입하지 않아 직원의 음주운전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기도 했다.

코레일은 2020년 5월 특수상해로 징역 1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원을 징계 처분하는 데 그치는 등 금고 이상 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원(8명)에 징계(4명)·불문경고(4명) 조치만 하고 당연퇴직시키지 않았다. 한전KPS의 경우,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기소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소속 직원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만 했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2020년 대법원에서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으로

감사원은 저지했다. 채용된 이후 횡령·배임이나 성폭력 등 범죄 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직원을 직무에서 배제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당연퇴직 제도의 경우에도 대상을 임용 결격 사유보다 협소하게 규정·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은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퇴직 대상이지만,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과 기타공공기관 임직원에는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

집검 결과, 코레일 등 14개 기관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더라도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당연퇴직 조치를 했으며, 기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소속 직원이 선고 전날부터 연차를 내 파악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복역 사실을 파악해 해임 처분했다. 또한, 한국석유공사 등 193개 기관은 음주운전 자체 확인 제도를 도입하지 않아 직원의 음주운전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공공기관을 지도·감독하는 기획재정부에 이번 감사결과를 제도개선 등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공공기관에 소속 임직원의 음주운전 사실을 자체 접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기타 공공기관에 대해 징계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지도·감독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정복기자

징역형(3년)의 집행유예(5년)가 확정된 소속 직원에 대해 당연퇴직 조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고 경고조치만 했다.

감사원은 수사기관의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수사결과 통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운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관한 수사 결과만 소속기관에 통보하도록 돼 있어 그 외의 범죄 관련 수사결과는 통보해 주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코레일은 소속 직원의 월로폰 투약·매매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다가 근무지에서 체포된 후에야 당연퇴직 조치를 했으며, 기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소속 직원이 선고 전날부터 연차를 내 파악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복역 사실을 파악해 해임 처분했다. 또한, 한국석유공사 등 193개 기관은 음주운전 자체 확인 제도를 도입하지 않아 직원의 음주운전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기도 했다.

교육 격차 해소를 기본으로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해 교복과 체육복, 패딩 등을 지원하는 '무상교복' 지원 법률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다. 이 예비후보는 13일 지난 2019년부터 지원되고 있는 중고교 '무상교복' 제도를 지원하는 법률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무상교복 지원 금액은 전국적으로 천차만별이다. 실제로 대전과 충남북, 세종시와 모두 지원되는 금액이 다르고 학교별로도 가격이 크게 차이 나는 실정이다.



**충청남도의회, 서천특화시장 화재 복구지원성금 기탁** 충청남도의회(의장조길연)는 최근 서천특화시장 화재 복구와 피해 상인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에 성금을 기탁했다. 충청남도의회는 14일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과 약당 원내대표인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과 조철기 의원(이신4·더불어민주당), 전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우광호 사무처장을 통해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 이택구 예비후보 '무상교복' 지원 법률안 추진

### 서구을 총선 예비후보가 학부모 표심잡기 나서



이택구 국  
민의힘 대전  
서구을 총선  
예비후보가  
학부모 표심  
잡기에 나섰  
다.

원되는 금액이 다르고 학교별로 도 가격이 크게 차이 나는 실정이다.

대전시의 경우 중학교 교복값이 30만 원~31만 5000원, 고등학교는 28만 1000원~31만 5000원, 세종시의 경우도 중학교 교복값이 28만 4000원~31만 4000원, 고등학교는 30만 7000원~31만 4000원 이었다.

충남의 경우도 중학교 교복 최저가격 15만 5000원, 고등학교 15만 원인 반면, 최고가격은 중학교 35만 8000원, 고등학교 4만 9000원에 달했으며, 충북의 경우 최저교복가격은 중학교·고등학교 각각 16만 5000원인 반면 최고가격은 중학교 31만 4500원, 고등학교 31만 8000원으로 가격차가 극명

하게 나타났다.

또 중등학교 교복 가격은 해마다 상승하고 있지만 지자체들의 지원금액은 턱 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학부모들의 불만소리가 높다. 특히 이 예비후보는 일명 '등골브레이커'로 불리는 겨울철 폐딩의 일률화를 통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의 겨울철 '폐딩 계급화'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이 예비후보는 "온라인 상에서 이미 폐딩은 계급화가 되어 있을 정도로 학생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이지만 가격대가 학부모들이 해마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교복 구매에 있어 최대한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무상교복'으로 느껴질 수 있는 범위를 준비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안=이정복기자

### 홍성군의회, 제301회

#### 임시회 개회

홍성군의회(의장 이선균)는 14일 갑진년 새해 첫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23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하였으며, 주요안건으로는 2024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청취, 2023 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등 일반안건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었던 김연명·김용하 위원이 현재까지의 연금개혁 경과와 주요 정점 등을 설명했다. 김상균 홍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5건 등 총 10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의한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장재석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권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회 결과보고의 건, 김은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을호텔 개발 정책연구회 등록의 건, 이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홍성군 자살사망 특성 분석 및 자살대책 정책연구회 등록의 건을 의결한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이정윤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홍성군 미야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홍성군수가 제출한 조례 3건을 심의한다.

신입건설위원회는 이정희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이동노동자 권리증진 조례안, 김덕배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조례안, 홍성군수가 제출한 조례 1건과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한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의 각 부서별 2024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와 청취를 통해 홍성군정의 방향과 지역발전을 이끌 정책 등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새로 이전하는 신창중학교는 학교 규모 47학급(일반 44학급, 특수 3학급)으로 2024년 9월에 개교할 예정이다. 아산=리량주기자

##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 모집 절차 착수

### '공론화 자문단' 구성 및 시나리오 워크숍 참여할 '의제숙의단' 구성 방안 논의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이하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상균·이하 공론화위원회)는 2월 13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론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연금개혁 공론화 시민대표단 모집 방법과 시나리오 워크숍을 위한 의제숙의단 구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단(50명)을 모집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2주간 '1만명 기초조사' 전화 면접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임의 추출된 만 18세 이상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연금개혁에 관한 입장과 향후 진행될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등을 설문할 예정이다.

공론화위원회는 향후 공론화 과정을 지원할 공론화 자문단을 구성했다. 공론화 자문단에는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한 강성호(보험연구원), 김수완(강남대학교), 난장십(동아대학교), 석재은(한림대학교), 윤홍식(인하대학교), 주은선(자출신고령사회위원회) 등 6명을 비롯해 오장현(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유희원(국민연금연구원), 이강구(한국개발연구원), 이다미(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재희(법무법인 비른) 등 11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나리오 워크숍에 참여할 의제숙의단 구성 방안도 심의했다. 의제숙의단은 시나리오 워크숍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요율 ▲의무가입연령과 수급연령 조정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세대간 형평성 개선 방안 ▲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퇴직연금의 연금화 방안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 제고 등 7개 의제별로 시민대표단이 숙의할 복수의 연금개혁 시나리오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의제숙의단은 2월 중 근로자, 사용자, 지역 기업자, 청년대표 등으로 구성해 3월 중순까지 활동을 원료화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었던 김연명·김용하 위원이 현재까지의 연금개혁 경과와 주요 정점 등을 설명했다. 김상균 홍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5건 등 총 10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의한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장재석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권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회 결과보고의 건, 김은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을호텔 개발 정책연구회 등록의 건, 이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홍성군 자살사망 특성 분석 및 자살대책 정책연구회 등록의 건을 의결한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이정윤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홍성군 미야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홍성군수가 제출한 조례 3건을 심의한다.

신입건설위원회는 이정희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이동노동자 권리증진 조례안, 김덕배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조례안, 홍성군수가 제출한 조례 1건과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한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의 각 부서별 2024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와 청취를 통해 홍성군정의 방향과 지역발전을 이끌 정책 등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 이명수 예비후보, 신창중 이전 공사 현장 중간 점검

### 중간점검 통해 현장의 어려움 청취하고 관계자들 격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이명수 예비후보(국민의힘, 기호2번)는 신창중학교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해결할 수 있도록 소통의 창구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이 후보는 "현재 신창중학교는 아산시 신창면 생활권과 멀리 떨어져 있어 학생 대부분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신창중학교가 이전되면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아산시 서부권의 고등학교 신설도 고민해야 할 때"라며 "미래지향적 교육도시 조성"에 집중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새로 이전하는 신창중학교는 학교 규모 47학급(일반 44학급, 특수 3학급)으로 2024년 9월에 개교할 예정이다. 아산=리량주기자

천안시의회 이종담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불당 1·2동)이 2월 13일 천안시의회 부의장실에서 김병오(전)서북구 지회장, 박명화 동남구지회장, 김은영 지역아동센터장, 정혜경 새별지역아동센터장과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내 지역아동센터의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미련됐다. 현장에서 종사하는 지역아동센터 임원들과 돌봄 케어 실태를 공유하고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계획수립 및 지역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포함해 천안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주민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지역아동센터 임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됐다.

이종담 부의장은 "아동복지 서비스의 질적향상과 지역아동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및 공간 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지역아동센터 현장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장기적으로 정책적으로 도울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함께 고

대전교육청, 2024학년도 새롭게 변화되는 주요 교육정책 발표

# “맞춤형·창의성 교육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14일 2024년 추진하는 주요 교육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정홍채 교육국장은 모든 학생을 위한 책임·맞춤 교육 및 미래 교육 기반 조성, 학교 현장 학교폭력 대응 지원 및 교원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교 민원 대응 지원 및 업무 경감 노력 등 2024학년도에 새롭게 달라지는 대전시교육청 주요 교육정책에 대해 안내했다.

▲책임·맞춤 교육 강화 및 미래 교육 기반 조성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올해 초등학교 1·2학년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되어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초·중·고 전 학년에 적용된다.

특히 올해부터 학생들의 학습과 성장에 결정적인 시기인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 평가를 통해 학력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학습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집중 관리하는 ‘책임교육학년제’를 도입하며, ‘기초 학력지원센터’를 신규 지정하여 기초 학력 정책, 학습지도자료, 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면서 모든 학생을 위한 맞춤·개별 학습 지원을 강화한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앞서 공동교육과정, 고교-대학 연계 원클래스 등 기존 사업을 차질없이 운영하고, 특히 쌍방향 원격 및 블렌디드 수업이 가능한 ‘대전온라인학교’를 신탄중앙중학교 부지에 설립하여 9월에 개교한다.

온라인학교는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과목을 학생들이 선택하여 온·오프라인으로 배울 수 있도록 최첨단 디지털 교육 서비스 및 인프라를 갖추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학업 수요에 맞게 필요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초등 대전늘봄학교’는 1학기에 초등학교 1학년 맞춤형 프로그램과 미래형 맞춤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시범학교로 운영하는 45교와 자율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중점학교 25교를 우선 운영하고 2학기부터 전면 시행한다.

늘봄학교 운영학교는 공간을 확충하여 늘봄교실로 활용하는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별도의 교사연구실을 마련하고, 학생 친화적인 운동 교실로 새롭게 바꾸어 줄 예정이다. 또한 방과후학교·돌봄지원센터를 대전현암초에 2월 개소하였으며, 강사 선발, 회계 업무, 홍보 등 학교 업무와 1:1 학교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살피면서 촘촘하게 지원하게 된다.

유보통합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직 4명, 일반직 6명으로 ‘유보통합 이관 준비팀’을 구성하고, 조직·재정·보육시스템, 보육 교직원 인건비 저우 개선 등 총 9개 분야에 대한 실무 추진 협의를 통해 이관 업무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 또한 교육청·시청·구청 간 실무 중심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37명의 ‘대전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하여 정기적인 정책 설명회도 실시하고 있다.

▲학교 현장 학교폭력 대응 지원 및 교원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학교 폭력제로센터’를 교육지원청에 설치하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를 새롭게 도입하여 퇴직교원·경찰·청소년 전문가 등을 동·서부교육지원청 40명 이내로 위촉해 학교현장의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전담하게 된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동·서부교육지원청 학생생활지원센터에 교원, 학부모, 전문가 등 10~50명으로 구성된 ‘지역교원보호위원회’를 오는 3월 28일 새롭게 설치하여 운영한다.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을 위해 대전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65명의 변호사를 위촉하여 지원청 자율장학지구별로 각각 한 명 이상의 담당 변호사를 배정한 ‘1교 1변호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법률상담, 변호사 동행, 법률 교육 등 교사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특히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나 교육활동인지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를 강화한다.

## ▲학교 민원 대응 지원 및 업무 경감 노력

학교 현장의 악성 특이 민원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동·서부 교육지원청에 ‘통합민원팀’을 기 설치하고 학교장 직속 민원 대응팀과 연계하여 학교에서 이관된 악성 민원 등을 신속히 처리하며, 민원 접수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학교 현장의 민원 대응을 적극 지원한다.

학교 현장의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교육청과 학교사업 계획을 연동시켜 학교에서 자체 계획을 별도 수립하지 않고 교육청 계획이나 예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학교 공문 연동제’를 신규 운영한다.

2024년 1월 1일부터 동·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에 ‘학교지원센터’를 새롭게 설치하고 사무관 1명, 주무관 11명을 배치하여 불법 활동 기기 점검, 먹는 물 관리 수질 검사 등 학교 개별 수행으로 비효율적이거나 교직원 간 갈등을 유발하는 업무를 센터로 이관하여 학교 현장에서 업무 경감을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전교육청 정홍채 교육국장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개혁 과제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한 신학기 준비 점검단을 구성하여 학교 현장의 원활한 신학기 시작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새로운 정책들이 학교에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대전교육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 ●정정●

하양미소 구강 교육



박희조 동구청  
장 = 15일 오  
전 11시 동구  
도담도당지역  
아동센터에서  
열리는 찾아  
가는 하양미소 구강 교육 참석.

동네서점 바로대출 협약식



서철모 서구청  
장 = 15일 오후  
3시 서구청  
갑천누리실에  
서 열리는 희  
망도서 동네서  
점 바로대출 협약식 참석.

위촉장 수여식



최충규 대덕구  
청장 = 15일  
오전 10시 대  
덕구청 구민  
의 사랑방에  
서 열리는 대  
덕구 지명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  
여식 참석.

## 중구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 개소

중구(구청장 권한대행 김영빈)는 15일 목동행정복지센터 3층에 지역공동체 돌봄 공간인 「중구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을 개소한다고 밝혔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공동체 중심의 돌봄 문화 조성을 위해 돌봄 품앗이를 구성하여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공간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중구는 지난해 여성가족부 공모에 선정되어 리모델링을 마치고 이번 1호점 개소하게 되었다.

중구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로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하며, 이용료는 무료이다. 중구는 돌봄 공간 제공뿐 아니라 적절한 상시프로그램 등도 운영하여 상호 정보공유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개소일인 15일에는 방문자들에게 시설안내 및 사탕뽑기 등 간단한 이벤트 진행과 다양한 흥보물 등을 배부할 계획이며, 나눔터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구 공동육아나눔터(042-252-1475)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빈 권한대행은 「중구 공동육아나눔터 개소로 아이들과 양육자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온빛동화구연 참여자 발대식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14일 평생학습과 강의실에서 「2024년 온빛동화구연 사업」 발대식을 갖고 힘찬 출발을 알렸다.

이날 발대식은 사업 시작 전 참여자들의 자긍심과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자리로 참여자 선서, 사업 설명, 직무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온빛동화구연」 사업은 노인 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어르신들이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60곳을 찾아가 경륜과 지식을 활용해 어린이들에게 움동과 함께 재미있고 유익한 통화를 들려주는 사업이다.

구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해 37명을 선발했으며, 전문 강사의 동화 구연 직무,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2006년부터 시작한 온빛동화구연 사업은 동구만의 특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아 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늘고 있다”며 “어르신들의 온빛 지혜와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을 기슴에 담아 교육진신 동구 르네상스 시대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 대전시 홍보대사 및 학생기자 22명 신규 위촉

## 세계 일류도시 대전 매력 알린다



대전시는 14일 대전시청에서 대내외 시정 홍보를 위한 홍보대사 및 학생기자 22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홍보대사에는 성악가 김동규, 아이돌 그룹 '배너', 유튜버 사나고, 배우 백봉기 · 김동찬, 개그맨 오나미 · 김경진, 트롯신동 김태웅, 가수 김재희, 팝페라 가수 성은지 등 총 10명을 위촉했고, 대전시 고등학교 연합 고교신문 '대전시사계' 학생기자 12명을 위촉했다.

성악가 김동규는 한국인 최초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데뷔해 세

계적인 명성을 얻었으며, 국내외 오페라 및 TV 출연 활동을 통해 친근감 있는 성악가로 인정받고 있다.

대전 출신 멤버 혜성이 속해 있는 아이돌 그룹 '배너'는 인기리에 방영된 JTBC 경연프로그램 '크리티컬'에서 높은 경쟁률을 뚫고 최종 우승을 하며 실력과 그룹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유튜버 '사나고'는 구독자 340만 명을 보유한 국내 최초 3D콘텐츠 아티스트로 액스포 30주년 기념 '30살이 된 꿈틀이' 홍보영상은 대전시와 불과로 진행한 바 있

다.

대전 출생으로 대전에서 초·중·고교 학창 시절을 보낸 배우 백봉기는 대학 백서 시정 홍보영상에서도 출연한 바 있으며, 대전 KBS 아침마당 메인 MC를 맡는 등 활발히 활동 중이다.

개그맨 오나미는 우승정보대학 사회체육학과를 졸업하고 KBS 23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이래 KBS '개그콘서트', SBS '꽃 때리는 그녀들' 등 각종 축제 ·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다양한 매력을 가진 유명 인사들이 대전시 홍보대사로서 대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적극적인 활동을 해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존에 대전시 홍보대사는 펜싱황제 오상우, 전 야구선수 김태균, 트로트 가수 민수현 · 김의영 등 유명인 11명과 시민 · 대학생 홍보대사 23명이 활동 중이다.

이들은 ‘대전 0시 축제’ 등 축하 공연 및 팬 사인회, 유튜브 콘텐츠 및 디큐멘터리 제작, 시정 홍보영상 출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전시 고등학교 연

합 고교신문 '대전시사계' 학생기자 12명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여러 기사와 의견을 발굴하며 고등학생과 대전시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세계 일류도시 대전의 매력을 알리는 국내 · 외 홍보활동은 물론, 대전 0시 축제 등 대전을 대표하는 각종 축제 ·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다양한 매력을 가진 유명 인사들이 대전시 홍보대사로서 대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적극적인 활동을 해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존에 대전시 홍보대사는 펜싱황제 오상우, 전 야구선수 김태균, 트로트 가수 민수현 · 김의영 등 유명인 11명과 시민 · 대학생 홍보대사 23명이 활동 중이다.

이들은 ‘대전 0시 축제’ 등 축하 공연 및 팬 사인회, 유튜브 콘텐츠 및 디큐멘터리 제작, 시정 홍보영상 출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김태선 기자

## 충남대병원 심장내과 박재형 교수

## 감염병 예방관리 공로 대전시장 표창



충남대 학  
교병원(병원  
장 조강희)

심장내과 박  
재형 교수(사  
진)가 감염병  
예방관리 사

업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건  
강증진을 위해 헌신적  
인 정부아 대전광역시장 표창을 받

았다. 박 교수는 심장질환의 전문가  
로서 진료뿐만 아니라 대전지역  
의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필수적  
인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예방집

종 후 이상반응 피해 보상 관련  
자문을 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박재형 교수는 “이번 표창은 단순히 개인의 성과가 아닌, 충남  
대병원이 감염병 대응에 있어 우수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지  
역사회 건강을 지키는데 앞장  
서고 있음을 인정받은 것이라 생  
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진료와  
연구에 매진하며 보다 나은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병배 기자

## 제조업 '위험성평가 교육' 실시

## 대전상의, 제조업 위험성평가 담당자 20여 명 대상

대전상공회의소(회장 정태희)

는 14일부터 15일까지 상의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조업 위험성  
평가 담당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제조업 위험성평가 교육’을 실

시했다. 대전상의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이후, 회원  
사로부터 본 교육의 주제가 개설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며 “우리  
지역 산업현장에서 사건 · 사고  
가 발생하지 않도록 맞춤형 교육  
훈련을 통해 현장의 안전관리 체  
계를 조기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3~4회차 교육 일정 및 참  
가 신청 문의는 대전상의 기업서  
비스(042-480-3043)를 통해  
문의할 수 있으며, 대전상의 회원  
사 입직원에게는 교육비 할인 서  
비스 혜택이 주어진다.

송병배 기자

## 유성구, 음악이 있는 유성산책 버스킹 출연자 모집

## 지역 예술인에게 공연 기회 제공···21일까지 접수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2월 21일까지 ‘2024년 음악이 있는 유성산책 버스킹’ 출연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야외공간 어디서든 공연이 가능한 지역예술인으로, 올

해 15개 공연팀을 선발하며 선정된 버스킹 출연자에게는 관내 전 지역에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함께 소정의 공연비도 지급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올해 유성구의 거리공연을 책임지고 이끌어 갈 실력있는 버스커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앞으

로 시작될 다양한 공연으로 구민들의 일상에 문화가 함께 숨쉬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성구 홈페이지 고시 ·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유성구 문화관광과(042-611-2085)로 하면 된다.

김태선 기자



대전시와 대전비즈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청 일자리경제과(042-270-4371) 또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042-719-8370-4, 8334)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 말하면 글로 바뀌어 전자간호기록 시스템에 저장된다. 이외에도 간호 메모, 수첩, 항암제 투여 시 확인 및 기록의 기능도 제공한다.

대전성모병원은 환자와의 다양한 소통을 기록하기 위한 대화형 음성인식 기능을 확대하고 주간 환자 안전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능도 추가 개발 중이다.

민승희 대전성모병원 간호부장은 “간호사는 환자의 활동경험 등 측정 후 PC로 간호 내용을 일일

이 기록으로 남겨야 하기 때문에 환자를 돌보는 일뿐만 아니라 간호기록을 작성하는 데 적잖은 시간을 할애해 왔다.”며 “이번 보이스 ENR 도입으로 효율성과 정확

성, 신속성을 갖춰 환자에게 직접 간호 시간을 늘리고, 안전한 간호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병배 기자

## 2024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 고용노동부 공모 3년 연속 선정 국비 10억 4,600만 원 확보

대전시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은 고용노동부 ‘청년도전 지원사업’ 공모에 3년 연속 선정돼 국비 10억 4,600만 원을 확보하고

‘2024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자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야외공간 어디서든 공연이 가능한 지역예술인으로, 올해 18세 ~ 39세 구직단년 청년 등

▲직업 ▲사회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며 참여자에게는 참여 수당과 함께 이수 · 취업 시 인센티브를 최대 350만 원까지 지급한다. 교육 종료 후에도 워크넷 구직 등록,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연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만 18세 ~ 39세 구직단년 청년으로 계속된 취업 실패, 대인관계 기피, 자신감 부족 등으로 구직의욕이 떨어진 청년과 자립 준비 청년, 청소년 복지사

▲직업 ▲사회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수당 등 지원

▲직업 ▲사회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수당 등 지원

▲직업 ▲사회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수당 등 지원

▲직업 ▲사회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수당 등 지원

▲직업 ▲사회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수당 등 지원

▲직업 ▲사회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수당 등 지원

▲직업 ▲사회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수당 등 지원

▲직업 ▲사회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수당 등 지원

▲직업 ▲사회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수당 등 지원

▲직업 ▲사회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수당 등 지원

▲직업 ▲사회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수당 등 지원

▲직업 ▲사회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수당 등 지원

▲직업 ▲사회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수당 등 지원

▲직업 ▲사회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 탐

## ●정정●

순방 일정 수행



김태 흠 충남  
도지사는 15일  
일본에서 오는 2월 18일까지  
순방 일정을 수행한다.

## 개막식



김체철 충남  
도 교육감 =  
15일 오전 10  
시 아산 충남  
교육청과 교육  
원에서 진  
행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 충  
남 미래 교육 특별전' 개막식에 참석.

## 제10차 임시회



조기연 충남  
도의회 의장 =  
15일 오후 4  
시 30분 경상  
북도 경주시  
에서 대한민  
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0차  
임시회에 참석.

## 여성농업인센터 개강식



최재구 예산군  
수 = 15일 오  
전 11시 30분  
더스타웨딩홀  
에서 열리는  
예산농협 여  
성농업인센터 개강식에 참석.

## 전문위원회 회의



이용록 예산군  
수 = 15일 오  
후 2시 예산군  
청 대회의실  
에서 열리는  
지방시대위원  
회 제2차 회의에 참석.

설명절 지원금 지원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종시민의 소중한 성금이 설명절 지원금으로 전달됐다.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박상혁)는 세종시민이 모아주신 성금 950만원을 세종시 저소득층 1500명과 사회복지기관 33개소에 설명절 지원금으로 지원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지원금은 지금까지 세종시민들이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부기부, 아니 소사이어티, 착한일터, 착한가게, 착한기장 등의 다양한 경로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동참해 조성된 성금으로 조성됐다.

세종모금회는 지난 2일 지원금을 대상자 개인계좌로 입금을 완료해 설명절에 필요한 제수용품이나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전달했다.

더불어 이번 2024년에는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대상자들이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달 세종시 33개 사회복지생활시설에 지원금 2천만원을 지급했다.

지금까지 지원된 명절 지원금은 2013~2015년 3천만원, 2016~2018년 5천만원, 2019~2023년 7천 500만원씩 추석과 설명절에 각각 지원금이 나갔으며 지금까지 2만8천여명에게 총 12억 7천2백여만원이 지급됐다.

박상혁 회장은 "세종시민과 기부자님들의 소중한 성금을 모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이 풍성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마음을 담아 잘 전달했다."며 "이웃을 위해 나눔을 베풀어 주신 세종시민들과 기부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 '세종 불교 낙화법' 세종시 무형문화유산 지정

## “국내 유일의 사례로 전승 보전”



닌 간략하게나마 '오대진언집' (영  
평사 소장)에 낙화법의 절차가 북  
서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의례는 예비의식, 본의식, 소재  
(消災)의식, 축원과 회향(回向)의  
식 순으로 진행된다.

절차에 따라 종이, 숯, 소금, 황  
을 준비하고 축원 밤원 후 낙화봉  
을 제작하고, 낙화 점화와 함께 수  
구즉득다라니 등을 염송하며 대  
난·재앙 예방과 의식에 참여한  
모든 이들을 축원하며 의례를 마  
친다.

김여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세종 불교 낙화법은 사찰에서 봉  
행되는 국내 유일의 사례로 전승  
보전을 통해 지역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역 유산  
발굴 전승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역사문화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교나라법보존회는 오는  
정월대보름인 24일 영평사에서 정  
월대보름행사와 함께 무형문화재  
지정 기념행사를 진행할 예정이  
다.

## 예산군 2024 사업체 조사 실시

2월 16일부터 3월 12일까지 약 1만2552개 업체 대상

예산군은 16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25일간 2024년 사업  
체 조사를 실시한다.

사업체 조사는 해마다 전국  
적으로 실시되는 국가 지정 통  
계 조사로 괴야원 사업체의 지  
역 별 분포 및 고용구조 등 정  
보는 각종 정부 정책 수립 및  
학술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  
된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12월 31  
일을 기준으로 군에서 산업 활  
동을 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  
상의 모든 사업체로 조사 항목  
은 사업체명, 종사자 수, 연간 매  
출액 등 전국 공동 항목 9개와  
도 지역 항목 10개로 조  
임 연간 급여 수준 1개 등 총 10  
개 항목이다.

관내 조사 대상 사업체 수는  
약 1만2552개이며, 조사 방법은  
사업체를 방문하는 면접 방식  
으로 진행되고 필요 시 전화 및  
인터넷 조사를 병행한다.

사업체 조사 결과는 오는 9월  
점정 발표되며, 확정 결과는 오  
는 12월 공표된다.

군 관계자는 "정확한 통계 조  
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체  
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  
다"며 "조사원은 조사원증을  
써 용하고 업체에 방문할 예정이  
니 각 업체에서는 조사에 적극  
응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  
했다.

예산=박제화 기자

## 미세먼지 없는 푸른 하늘 만든다

## 道, 제2차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 추진

충남도가 미세먼지 없는 푸  
른 하늘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  
역 맞춤형 대기환경관리 시행  
계획 수립에 나섰다.

도는 14일 도청 소회의실에  
서 구상 도 기후환경국장과 전  
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충  
남도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2025~2029)'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충남 지역은 화력발전소, 제  
철단지, 석유화학단지 등 다수  
의 대형 배출원과 편서풍 지대  
에 위치한 중국의 영향 등으로  
지역의 대기질 개선에 대한 요구  
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도는 2020년 제1차 시행계획  
수립 이후 △발전·산업 등 대  
형배출원의 자발적 감축과 시  
설개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치폐쇄 및 상한제약 실시 △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  
한 경유차 폐차△무공해차 확  
대 보급 등 끊임없는 노력을 기  
울여 왔다.

그 결과,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2016년 40만 9912톤  
에서 2021년 31만 9806톤으로  
9만 106톤 감축했으며, 미세먼  
지 농도 또한 2019년 26㎍/㎥에  
서 2022년 20㎍/㎥까지 낮추는  
김정환 기자

## 검사 방향·세부사항 논의

## 세종시, 2024년 축산물 안전성검사 회의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정경용)이 14일 시교육청, 축산  
물품질평가원 관계자 등이 참  
석한 가운데 '2024년 축산물 안  
전성검사' 회의를 했다.

김경기 기획조정실장은 "지역  
기업 성장 촉진과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디자인 개발 지원으로 지  
자체와 기업이 함께 도시 성장 동  
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세  
종시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자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  
이나 제출서류는 시 누리집 또는  
전화 044-300-2153로 확인가  
능하다.

김태선 기자

물량도 신규 배정해 시민 먹거  
리 안전을 보장한다.

아울러 공공급식으로 납품되  
는 밭효유, 치즈 등 축산물기공  
품에 대한 검사로 학생들의 먹  
거리로 안전하게 관리할 방침  
이다.

올해는 중앙부처 지침에 따  
라 원유진류물질 검사항목은  
기존 48종에서 53종으로, 식용  
란 진류물질 검사항목은 기존  
81종에서 84종으로 확대된다.

식용란 살모넬라 검사는 검  
사시료(체란) 수를 농가당 20개  
에서 40개로 상향해 검사를 정기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축산물 취급업체 위생  
감시와 연계해 성수기와 하절  
기기에 세균수, 대장균수 위생지  
표 미생물검사를 진행하고 살  
모델라, 리스테리아 등 식중독  
균 검사를 집중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해 총 2만 2,907건의 축산물을  
안전성 검사를 진행했으며 검사  
결과는 모두 '적합'이었다.

김태선 기자

## “세종시 기업 디자인 개발 고충을 덜어드립니다”

## 상반기 20개 기업 대상 맞춤형 디자인 개발·지원



족도를 조사한 결과 90% 이상이  
이 사업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나  
는 등 수요자 호응도 크다.

특히 올해는 기존 청년과 청년  
농업인으로 한정했던 지원 범위를  
일반기업과 일반농업인까지 확장  
했다.

시는 상반기(2월), 하반기(7월)  
중 각 20개 기업을 선착순으로 모  
집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세종시 소재 사업  
장 또는 거주지가 있는 청년 기업  
및 사업장과 거주지 포함한 세  
종시 일반기업, 농업인이다.

대상 기업은 ▲로고(CLB) ▲패  
키지(제품포장) ▲홍보(카달로  
그) · 사업계획(PPT) ▲전시부스  
그래픽 등 5개 항목 중 1개를 선택  
해 지원하면 된다.

세종시청 디자인팀은 기업과 함  
께 필요한 디자인을 상의해 기업  
맞춤형 디자인 개발을 적극 지원  
할 계획이다.

또한 이용자들이 유발하는 소음  
과 쓰레기 무단 투기 등 피해로 인  
근 주민의 불편도 가중되는 실정  
이다.

군은 공유 숙박 기반 '에어비엔  
비' 등에 등록된 무단고 숙박업  
소에 계도 메시지를 발송하고  
해당 오피스텔, 아파트 등 관리  
사무소에 계도 공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 경각심을 고취 시킬 계획  
이다.

또 군은 계도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현장 단속 후 고발  
조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관내 무단고 업소  
로 추정되거나 제보된 업소를 중  
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지속적인 관찰(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안전 신문고를 통한  
군민 여러분의 신고 또한 큰 힘이  
되니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 예산군, 무신고 불법 공유 숙박업소 단속 강화

## 공정하고 건전한 숙박환경 조성 총력

예산군은 최근 온라인 공유 숙  
박 기반(플랫폼) 에어비엔비  
(airbnb) 등을 이용해 아파트 등 공  
동 주택에서 무신고 불법 숙박업  
을 운영하는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공정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숙박 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영  
업 종류별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해당 자격에 신고를 해야 하다.

또한 이용자들이 유발하는 소음  
과 쓰레기 무단 투기 등 피해로 인  
근 주민의 불편도 가중되는 실정  
이다.

군은 공유 숙박 기반 '에어비엔  
비' 등에 등록된 무단고 숙박업  
소에 계도 메시지를 발송하고  
해당 오피스텔, 아파트 등 관리  
사무소에 계도 공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 경각심을 고취 시킬 계획  
이다.

또 군은 계도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현장 단속 후 고발  
조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관내 무단고 업소  
로 추정되거나 제보된 업소를 중  
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지속적인 관찰(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안전 신문고를 통한  
군민 여러분의 신고 또한 큰 힘이  
되니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예산=박제화 기자





**대전의용소방대, 미래 발전 전략 모색 세미나 개최** 대전소방본부는 14일 대전목재문화체험장 대강당에서 강대훈 소방본부장을 비롯해 소방공무원, 대전의용소방대장, 지역대장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용소방대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논산소방서, 시니어클럽 어르신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논산소방서(서장 김경철)는 14일 논산시니어클럽 참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응급처치 대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강민희 대전보훈청장, 삼일절 계기 독립운동 현충시설 특별점검** 국가보훈부 대전지방보훈청 강민희 청장이 14일 지난해 12월 경에 개보수가 완료된 애국지사 임병직 박사 생가를 방문해 개보수 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다. 이번 조사는 삼일절을 맞아 대전·논산·부여·금산 등 대전보훈청 관내의 독립운동 관련 현충시설 7개소를 현장방문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당진소방서, 산불 발생 증가하는 봄철 대비**

## 산불 예방수칙 준수 당부 나서



당진소방서는 산불 발생이 증가하는 봄철을 대비해 산불 조심 기간(2.1~5.15.) 운영과 함께 산불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1~‘23년) 충남에서 발생한 산불은 ‘21년 39건, ‘22년 61건, ‘23년 66건으로 총 166건이 발생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폐허 면적은 총 397.2㏊이다. 당진 관내에서도 작년 4월 대호지면 사성리 일원에서 대형 산불화재로 9854㏊가 손신했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산 시 성냥, 라이터 등 인화물질 소지 금지 ▲허용된 구역에서만 쓰자 · 캠프 활동하기 ▲산림 인접지역에서는 놀 · 밟두령 및 쓰레기 소각하지 않기 ▲지붕, 태라스 등에 낙엽이나 건조 쓰레기 등이 쌓이지 않도록 정리하기 등의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또한 당진소방서는 산불조심기간 2.1~5.15.을 운영해 ▲산불 예방순찰 및 주요 등산로, 전통사찰 등 산불예방 캠페인 ▲이미 산 등 산림 6개소에 대한 화재진압훈련 ▲산림청 등 관계기관 공동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당진=최근수기자

**공주소방서, 재난약자시설(41개소)**

## 소방관 진입장 대한 정비 실시



공주소방서(서장 류일희)는 19일까지, 재난약자시설(41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관 진입장에 대한 정비를 실시한다.

소방관 진입장이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방대원이 신속하게 건축물을

에 진입해 화재진압과 구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통로로 건축법 시행령 51조 4항에 설치되는 것이다.

이번 점검은 기존에 부착했던 소방관 진입장 스티커 분실 또는 훼손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자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류일희 소방서장은 “소방관 진입장은 재난 상황 발생 시 피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진입장을 기리거나 주변에 장애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며 “화재발생 시 신속한 인명 구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공주=정상범기자

# 지난해 ‘뒷광고’ 2.6만건 적발…인스타 최다

## 공정거래위원회,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

지난해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블로그 등 SNS에서 더보기판 등에 광고 표시를 숨기거나, 흐릿한 이미지로 소비자의 인식을 어렵게 한 ‘뒷광고’의 심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은 2만5966건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 주요 SNS를 게시물을 대상

으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기반적 광고 행위인 ‘뒷광고’를 모니터링했다.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표시위치 부적절이 42.0%로 가장 많았다. 광고나 제품 제공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없도록 더보기판 또는 댓글판에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다음으로는 소비자가 쉽게 인식 할 수 없는 작은 글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알아보기 힘들게 표시하는 표현방식 부적절(31.4%)이 다수 적발됐다.

공정위는 뒷광고 의심 게시물에 대해 자진 시정을 유도해 총 2만

9792건의 게시물의 시정을 원료했고 밝혔다. 여기에는 적발 사례 외에도 인플루언서와 광고주 등이 추가로 시정해 제출한 게시물 수가 포함됐다.

공정위는 ‘뒷광고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파력이 큰 앱(short-form)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소비자가 망고라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위치와 관련한 지침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천소방서, 상반기 소

방사법 기획단속 추진

서천소방서(서장 김영배)는 화재 발생 시 디수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가 있는 취약대상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예방을 위해 오는 2월 26일부터 5월 24일까지 약 3개월 간 소방사법 기획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단속은 사회적 이슈 관련 또는 관계인 인식 개선이 필요한 대상(폐차장, 신축공사장, 창고, 노유자시설, 위험 물시설, 공동주택) 16여 개소를 선정 특별단속반을 편성 실시한다.

중점 단속 내용은 ▲저 장소 외의 장소에 위험물 보관 ▲폐차 후 잔여 연료유 불법 저장 · 취급 ▲소방시설 공사 재하도급 또는 미등록업체 하도급 여부 등이다.

적발 시 위법 사항의 시인에 따라 경 · 중을 고려하여 조치할 예정이며, 건축법 등 타 관계법령 위반 시 관계기관 통보할 방침이다.

서천=김성구기자

4.4%포인트다.

행정안전부의 2024년 1월31일 준민등록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셀기증)가 적용됐다. 응답률은 14.6%로 전체 통화시도는 344명에게 이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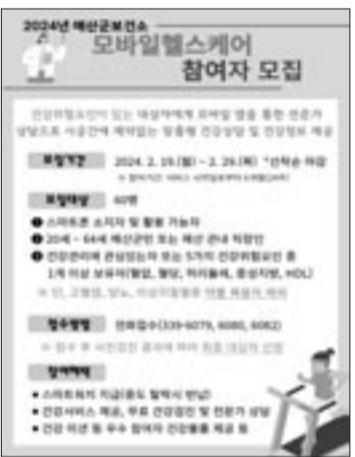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정복기자

daejeontoday.com

예산군보건소, 맞춤형 건강관리로 내 건강 지키기

##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참여자 모집



특히 모바일 헬스케어는 최소한의 방문(3회)으로 직장인도 시공간의 제약 없이 보건소 건강 관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사업 참여 대상은 20세 이상 64세 이하의 스마트폰 활용이 가능한 성인 중 건강 위험 요인(혈압, 혈당, 허리 둘레, 중성 지방, 고밀도 HDL-콜레스테롤)을 가진 군민 또는 관내 직장인이며, 관련 질환자 또는 약물 복용자는 제외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최종 수료 시 스마트 밴드(손목시계)가 제공되며, 무료 건강 검진(3회) 및 상담, 6개월간 일대일 건강 교육 및 상담 관리가 제공되고 참여 외료 자체는 소정의 상품이 지급된다.

참여 희망자는 보건소 건강 증진팀에 전화해 신청하면 되며, 사전 건강 검진 후 의사 상담에 따라 최종 대상자가 선정된다.

예산=박제화기자

건협 대전충남지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홈페이지 통해

## 건강한 학교생활 필수예방접종 체크



입학 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기대와 설  
렘 가득한  
시기이기  
도 하지만  
아이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꼭 확인  
해야 할 것이다. 바로 필수예  
방접종완료 여부이다.

초등학교 필수예방접종은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5차, IPV(폴리오) 4차, MMR(홍역/우유성화이煞선염/풍진) 2차, 일본뇌염virus(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등 4종이며, 중학교는 Td(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6차, 일본뇌염virus(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차(여학생만 대상) 등 3종이다.

예방접종 내역은 예방접종도  
우미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확  
인할 수 있으며, 미접종자의 경우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해  
접종받을 수 있다. 또한 예방접종  
을 완료했음에도 전산 등록이 누락됐다면 접종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전산 등록을 요청해  
접종 내역을 등록할 수 있다. 단,  
예방접종 금기자는 진단/접종반  
은 의료기관에 접종 금기 사유의  
전산 등록을 요청하면 접종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 건강증진의원 오선미 진료과장(기정의학과 전문의, 사진)은 “예방접종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접종 면역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단체생활을 해야 하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하다”며, “입학 전 예방접종 여부를 체크하고, 미접종자는 접종을 완료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병범기자

## 전교조 충남지부-충남교육청 ‘갑질’ 처리 사례 전 교사에 안내키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와 충남교육청은 종합감사를 할 때 교직원 갑질 인식 조사와 접점하고, 접수된 갑질 사안과 처리 결과를 충남의 전체 교사와 관리자에게 안내하기로 했다. 또, 학생 여비 예정이다.

특히,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접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재차 확인했다. 교사가 계약제 교원 임용업무(도입공고, 통합조합, 계약, 협동체결, 수당지급과 학교장 채용 직종의 채용을 담당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지도하도록 했다. 더불어, 학생들의 안전한 등·학교를 위한 교통정리를 자율적인 봉사단체가 실시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교사에게 교통정리 봉사를 강요해, 본연의 업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유치원의 경우, 방학 중 돌봄 강사를 내부 강사로 할 때 초등학교에 준하는 강사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특수학교(급)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 벨이 필요한 학급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학생 교육 지원 인력으로 일하는 사회복지부모원의 근무상황 관리인건비 신장 등은 특수교사가 담당하지 않도록 했다.

산업안전 보건법과 관련한 업무 가운데 산업(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제공과 노동자 안전보건) 대면 교육은 충남교육청이 직접 추진하기로 했다. 안전보건 접점과 균형격차 유해 요인 조사 등 7개 업무는 전문업체에 통합 위탁을 맡기는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보건과 영양교사의 문제 제기를 어느 정도 수용한 것이다.

충남교육청은 감사계획에 학교업무 최적화 추진 이행 여부를 포함해 학교 운영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전교조 충남지부가 단체 불이행 학교에 대한 이행요구를 하면 충남교육청은 이를 확인하고 불이행 학교를 직접 지도하기로 했다. 만약 지속해서 이행하지 않는다면 절차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이정복기자

교사가 자기계발 등을 위한 자율연수

를 진행하고자 할 때 연 25만 원 가량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합의안에서 교사 자율연수비를 학교회계 기본 지침에 따라 학교 예산에 편성하고 도서구입, 학원수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는 학년 조에 이를 소속 교사들에게 안내해야 한다.

학생 여비 중 식비도 상향했다. 기준 8,000원에서 1인 1식 10,000원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할 수 있게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접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재차 확인했다. 교사가 계약제 교원 임용업무(도입공고, 통합조합, 계약, 협동체결, 수당지급과 학교장 채용 직종의 채용을 담당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지도하도록 했다. 더불어, 학생들의 안전한 등·학교를 위한 교통정리를 자율적인 봉사단체가 실시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교사에게 교통정리 봉사를 강요해, 본연의 업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유치원의 경우, 방학 중 돌봄 강사를 내부 강사로 할 때 초등학교에 준하는 강사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특수학교(급)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 벨이 필요한 학급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학생 교육 지원 인력으로 일하는 사회복지부모원의 근무상황 관리인건비 신장 등은 특수교사가 담당하지 않도록 했다.

산업안전 보건법과 관련한 업무 가운데 산업(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제공과 노동자 안전보건) 대면 교육은 충남교육청이 직접 추진하기로 했다. 안전보건 접점과 균형격차 유해 요인 조사 등 7개 업무는 전문업체에 통합 위탁을 맡기는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보건과 영양교사의 문제 제기를 어느 정도 수용한 것이다.

충남교육청은 감사계획에 학교업무 최적화 추진 이행 여부를 포함해 학교 운영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전교조 충남지부가 단체 불이행 학교에 대한 이행요구를 하면 충남교육청은 이를 확인하고 불이행 학교를 직접 지도하기로 했다. 만약 지속해서 이행하지 않는다면 절차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이정복기자

교사가 자기계발 등을 위한 자율연수

# 학령인구 감소에 교대 정원 15~20% 줄인다

## 교육부, 교대 총장들과 감축 논의 착수…577~770명 감축 예상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초등교사 신규 채용 규모를 2026년까지 최대 961명 줄이기로 한 가운데 교육대학(교대) 정원 감축 논의도 본격화했다.

교육계는 교대 정원의 15~20% 수준에서 감축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14일 “교대 총장들과 정원 감축 협의에 착수했다”며 “2025학년도 대입부터 적용하기에 4월 초까지는 결론을 낼 것”이라고 했다.

이번 교대 감축 논의는 교육부가 작년

4월 발표한 중장기(2024~2027년) 교원 수급 계획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2026년까지 공립 초등교사 신규 채용 규모를 지난해(3561명) 대비 최대 961명 감축한 2600~2900명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교사 신규 채용 규모가 줄어들면 임용 고시 선발 인원도 감소하게 된다. 교대 정원·졸업자 수를 줄이지 않으면 임용 탈락자가 늘어나는 구조다.

현재 전국 교대 10곳과 초등교육과 3곳(한국교원대·이화여대·제주대)의

입학 정원은 3847명이다. 교육부는 교원 양성기관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교·사대 정원을 줄여왔지만,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우수한 교대 정원은 올해로 13년째 동결된 상태다.

교육부는 교대 총장들과 정원 15%~20%를 줄이는 논의에 착수했다. 15% 감축을 결정하면 577명이, 20%이면 770명이 줄어든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 신규 채용 규모가 줄기 때문에 교대 총장들도 정원 감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등록금 수입 감소분

에 따른 보전을 위해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대 정원의 15~20% 수준에서 감축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신입생 입학 1년 1개월 전까지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정원 조정 사항이 있을 때 변경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늦어도 4월 초까지는 교대 정원 감축 규모를 확정,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정복기자



**금산교육지원청, 충남 유치원 교육과정 배움자리 실시**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법연)은 2월 13일 금산교육지원센터에서 공·사립 유치원 교사 20여명을 대상으로 유치원 교육과정 배움자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배움자리는 충남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안내하고, 충남미래교육 2030 지향점을 구현하는 유치원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충남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안내 ▲금산유아교육계획 안내 ▲금산유아교육연구회 협의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유치원 교원의 교육과정 문제력을 더하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류동훈)은 지난 13일, 관내 국·공·사립 유치원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2024 신학기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배움자리를 운영했다. 이번 연수는 충남 미래교육 2030 방향을 반영한 유치원 운영과 2024 신학기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학교 현장에 안내해 19일부터 진행될 함께 만 들어가는 교육과정을 탄탄하게 수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아산교육지원청, 아산미을교육포럼 1차 배움자리 열어** 아산교육지원청(박서우 교육장)은 지난 13일, 민관학의 마을교육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교육에서 마을 교육 공동체의 의미와 중요성’을 주제로 배움자리를 가졌다. 이번 아산미을교육포럼 1차 배움자리는 지난해 11월 7일 아산미을교육네트워크 출범 이후 준비한 첫 행사다.



## 부여교육지원청,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회 개최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배)은 지난 13일 김지철 교육감을 비롯한 김영배 교육장, 각 부서 팀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신년 주요업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2023 주요 성과 ▲2024 주요업무 추진 계획 ▲2024 중점사업 및 현안사업 ▲업무별 애로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됐다.

부여교육지원청은 배움이 즐거운 행복교육, 모두에게 특별한 미래교육, 안전하고 든든한 책임교육, 포용하며 함께하는 시민교육,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원행정의 5대 정책을 부여교육의 기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배 교육장은 “2024년 주요업무 보고회를 통해 소통한 내용과 교육감님의 당부사항을 바탕으로 행복한 배움과 나눔으로 함께 성장하는 부여교육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여=김성구 기자



## 세종시교육청,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 확대 운영

### 학생 맞춤형 교육모델을 창출하고 디지털 교육 전환 기반 구축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는 학생 맞춤형 교육 모델을 창출하고 디지털 교육 전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24학년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이하 디지털 선도학교)’를 25교로 확대하여 운영한다.

디지털 선도학교는 2025년 도입 예정인 인공지능(AI) 기반 코스웨어\* 등에 데스크 프로그램을 활용한 교수·학습법을 학교에 적용함으로써 교사의 역할변화 등에 따른 성공적인 디지털 교육모델을 창출하고 이를 다른 학교로 확산시켜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학교이다.

부여교육지원청은 배움이 즐거운 행복교육, 모두에게 특별한 미래교육, 안전하고 든든한 책임교육, 포용하며 함께하는 시민교육,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원행정의 5대 정책을 부여교육의 기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배 교육장은 “2024년 주요업무 보고회를 통해 소통한 내용과 교육감님의 당부사항을 바탕으로 행복한 배움과 나눔으로 함께 성장하는 부여교육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여=김성구 기자

교육혁신 선도학교의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디지털 교육자료 개발·보급 ▲디지털 교육 교원 역량 강화 ▲세종 디지털 교육 박람회 운영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 연수 및 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 운영이 인공지능(AI) 코스웨어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육자료를 선도적으로 활용하는 미래교육 실현의 튼튼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세종시교육청은 디지털 교육 전환 기반 구축과 함께 디지털 선도학교의 성공적인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물론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김태선 기자

## 충남교육청, 영양교사와 함께 만드는 영양·식생활 교육 추진

### 도내 영양교사 대상 2024년도 영양·식생활교육 발전 협의회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학교 급식과 학교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식생활 교육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4일 충남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에서 지

역별 대표 영양교사와 함께 2024년도 영양·식생활 교육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협의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효과적인 저탄소 초록 급식 운영 방안 ▲영양상담교육자료 제작 방안 ▲2024학년도 교육급식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방안 등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로 구성됐다.

김정환기자

특히, 지구온난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음식물쓰레기 감량) 내실화 연구회’를 조직하였는데,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지철 교육감은 “에너지 낭비와 온실

가스 배출 등 환경문제와도 직결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은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라며 “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포함해 올해에도 충남 학교급식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충남=정상범 기자

## 청양교육지원청, 2024년 교육경비 3% 증액 확보

### 교육환경 증진 기대



청양교육지원청은 청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청양군청으로부터 매년 교육경비를 지원받고 있다.

‘별밤 도서관 투어’는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아(6~7세)를 대상으로 올바른 도서관 이용 안내와 독서 체험 활동을 통해 독서에 흥미를 유발하고자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3월 22일에 시작하여 11월 22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운영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담당 사서가 도서관을 소개하는 ‘반짝이는 도서관’, 아산도서관 어깨동무동아리 회원과 함께하는 인형극 공연과 독후활동 ‘별도 달도 따뜻계’, 자유 독서와 별사탕 선물을 주는 ‘별빛이 내린다’로 구성된다.

정명옥 관장은 “도서관 이용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의 올바른 책 읽기 습관 형성과 바른 도서관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 기자

청군은 고등학생 조식식 무상급식비(4억 5천만 원)와 청양산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비(2천 3백만 원)를 지원하고 있다.

진기성 교육장은 “청양 학생들의 교육환경 증진에 힘써주고 있다.”

또한, 교육경비와 더불어 청양군 교육환경을 통해 청양군 교육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교육경비로 중학생 해외영어캠프,

영재교육캠프, 학력향상, 체육선수 육성, 진로체험 등 21개의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특히 충남 15개 시·군 중 유일하게 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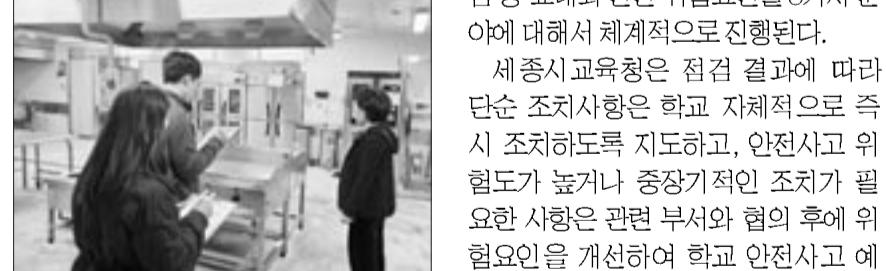
양=정상범 기자

충남교육연수원, 교육감 방문 신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충남교육연수원(원장 김준태)은 지난 13일, 김지철 교육감을 비롯한 김준태 원장, 각 부서 부장과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신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북카페에서 차담회를 가졌다.

## 신학기 대비 ‘학교안전 종합점검’

세종시교육청, 통학 안전관리 등 8개 분야…14일~29일 집중 점검



안전 및 화재 예방, 학교内外 공사장 점검 등 교내외 안전 위험요인별 8가지 분야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세종시교육청은 점검 결과에 따라 단순 조치사항은 학교 자체적으로 즉시 조치하도록 지도하고, 안전사고 위험도가 높거나 중장기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 후에 위험요인을 개선하여 학교 안전사고 예방에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학교안전 종합점검’의 주요 내용은 ▲통학 안전관리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및 공기정화장치 관리 ▲학교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관리 ▲기숙사 화재 예방 및 대응관리 ▲현업근로자(시설, 경비, 청소) 산업안전 관리 ▲현업근로자(급식실, 통학보조) 산업안전 관리 ▲과학 실험실 안전관리 등 총 8개 분야이다.

점검은 통학 안전관리, 학교 시설물

## 2024년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 공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총장과 교육부는 “2024년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 참가 대학 모집을 공고했다.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은 전문대학생들에게 진공과 연계한 해외 현장학습 기회를 제공으로 제공하여 글로벌 역량을 갖춘 학생 전문직 입인 양성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으로, 2023년 기준, 일반선발(자율형, 지정형, 창업트랙)에 48개 전문대 1,042명이 응시해 3:1의 경쟁률을 나타냈으며, 최종 내부심사를 거쳐 48개 대학 338명을 선발했다.

2024년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은 총 310명 내외로 학생을 선발

할 예정이며, 특히 2023년 대비 달라진 점으로는 ‘해외 창업 트랙’ 운영 강화 및 ‘한국-캐나다 취업연계 유아교육’ 트랙이 신설됐다.

‘해외 창업 트랙’ 운영 과정은 해외 청년기와의 연계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 구축, 창업환경 분석, 영업 미션 수행 등 해외에서의 창업 이론교육 및 실습을 수행하게 된다.

또, 우수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기존 1개교당 3백만 원의 추가 국고지원금이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무엇보다 2024년 시범 운영으로 신설된 ‘한국-캐나다 취업연계 유아교육트랙’ 운영 과정은 국내 전문대학 유아교육전공 3학년 대상으로 캐나다 뉴

이정복기자

# '양액재배'로 바꿔 소득 5배 폭증

충남농기원, 서천 쪽파 양액재배 농가·벼 재배 때와 비교하면 소득 47배 상승

민선8기 합센총님이 도정 핵심 사업으로 보급 추진 중인 스마트팜의 기본 요건으로 꼽히고 있는 '양액재배'가 경이적인 수확량·소득 증대 효과를 올리고 있다.

동일한 장소·면적의 농지(시설하우스)에서 연간 4회 수확하던 것을 11회까지 끌어올리고, 소득은 3~5배 폭증을 기록하기도 했다.

14일 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양액재배는 작물을 흙 대신 인위적인 재배 틀에 심고, 영양분이 섞인 액체를 공급해 키우는 농법이다.

이 재배법은 ▲연작장애 경감 및 병충해 저감 ▲정밀하고 효율적인 양수분 관리 ▲수확량 증대 및 품질 제고 ▲노동력 절감 ▲비료·농약 투입 감소 ▲친환경 생산 용이성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초기 높은 투자 비용과 재배 매뉴얼 부족,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땅기·토마토·파프리카 등 일부 작물만 양액재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 농업기술원은 다양한 작물에 대한 양액재배 가능성 검토 및 보급 확산, 매뉴얼 확립 등을 위해 2019년부터 44억 원을 투입, 시설원에 양액재배 디 품목 확산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상은 잎들끼, 엽체류, 쪽파, 건고주 등 7개 작목으로, 9개 시군 32개소에서 사업을 추진했다.

그동안 사업 추진 결과를 보면, 서천 쪽파 농가의 경우 기존 재배 방식에 비해 수확 횟수와 소득이 3배 늘었다.

이 농가는 3300m<sup>2</sup>의 시설하우스에 1억 5000만 원을 투입, 분무경 양액재배 시설을 설치했다.

분무경 양액재배는 작물을 틀에 고정시키고, 공기 중에 노출시킨 뿌리에 분무기로 물을 뿌리듯 양분(양액)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 재배법은 더 정밀한 양수분 관리가 가능해 생육이 빠르고, 병해증이 없는 반면, 관리가 까다로운 단점이 있다.

분무경 양액재배는 작물을 틀에 고정시키고, 공기 중에 노출시킨 뿌리에 분무기로 물을 뿌리듯 양분(양액)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 농가는 3000m<sup>2</sup>에서 기준 2000kg에서 5100kg으로 2.5배, 조수입은 14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3.1배, 경영비를 뛰어난 소득은 1100만 원에서 3300만 원으로 3배 증가했다.

같은 땅에서 벼를 재배했을 때 연간 소득이 70만 원에 불과했던 것을 쪽파 양액재배를 통해 47배 많은 소득을 올린 셈이다.

부여 상주 재배 농가는 분무경 양액재배 방식을 택하며 연간 수억 원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농가는 3300m<sup>2</sup>의 시설하우스에 1억 5000만 원을 투입, 분무경 양액재배 시설을 설치했다.

분무경 양액재배는 작물을 틀에 고정시키고, 공기 중에 노출시킨 뿌리에 분무기로 물을 뿌리듯 양분(양액)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 재배법은 더 정밀한 양수분 관리가 가능해 생육이 빠르고, 병해증이 없는 반면, 관리가 까다로운 단점이 있다.

분무경 양액재배는 작물을 틀에 고정시키고, 공기 중에 노출시킨 뿌리에 분무기로 물을 뿌리듯 양분(양액)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 농가는 3000m<sup>2</sup>에서 기준 2000kg에서 5100kg으로 2.5배, 조수입은 14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3.1배, 경영비를 뛰어난 소득은 1100만 원에서 3300만 원으로 3배 증가했다.

같은 땅에서 벼를 재배했을 때 연간 소득이 70만 원에 불과했던 것을 쪽파 양액재배를 통해 47배 많은 소득을 올린 셈이다.

부여 상주 재배 농가는 분무경 양액재배 방식을 택하며 연간 수억 원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농가는 3300m<sup>2</sup>의 시설하우스에 1억 5000만 원을 투입, 분무경 양액재배 시설을 설치했다.

분무경 양액재배는 작물을 틀에 고정시키고, 공기 중에 노출시킨 뿌리에 분무기로 물을 뿌리듯 양분(양액)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 재배법은 더 정밀한 양수분 관리가 가능해 생육이 빠르고, 병해증이 없는 반면, 관리가 까다로운 단점이 있다.

분무경 양액재배는 작물을 틀에 고정시키고, 공기 중에 노출시킨 뿌리에 분무기로 물을 뿌리듯 양분(양액)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 농가는 3000m<sup>2</sup>에서 기준 2000kg에서 5100kg으로 2.5배, 조수입은 14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3.1배, 경영비를 뛰어난 소득은 1100만 원에서 3300만 원으로 3배 증가했다.

같은 땅에서 벼를 재배했을 때 연간 소득이 70만 원에 불과했던 것을 쪽파 양액재배를 통해 47배 많은 소득을 올린 셈이다.

부여 상주 재배 농가는 분무경 양액재배 방식을 택하며 연간 수억 원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농가는 3300m<sup>2</sup>의 시설하우스에 1억 5000만 원을 투입, 분무경 양액재배 시설을 설치했다.

분무경 양액재배는 작물을 틀에 고정시키고, 공기 중에 노출시킨 뿌리에 분무기로 물을 뿌리듯 양분(양액)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 재배법은 더 정밀한 양수분 관리가 가능해 생육이 빠르고, 병해증이 없는 반면, 관리가 까다로운 단점이 있다.

분무경 양액재배는 작물을 틀에 고정시키고, 공기 중에 노출시킨 뿌리에 분무기로 물을 뿌리듯 양분(양액)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 농가는 3000m<sup>2</sup>에서 기준 2000kg에서 5100kg으로 2.5배, 조수입은 14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3.1배, 경영비를 뛰어난 소득은 1100만 원에서 3300만 원으로 3배 증가했다.

같은 땅에서 벼를 재배했을 때 연간 소득이 70만 원에 불과했던 것을 쪽파 양액재배를 통해 47배 많은 소득을 올린 셈이다.

부여 상주 재배 농가는 분무경 양액재배 방식을 택하며 연간 수억 원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농가는 3300m<sup>2</sup>의 시설하우스에 1억 5000만 원을 투입, 분무경 양액재배 시설을 설치했다.

분무경 양액재배는 작물을 틀에 고정시키고, 공기 중에 노출시킨 뿌리에 분무기로 물을 뿌리듯 양분(양액)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 재배법은 더 정밀한 양수분 관리가 가능해 생육이 빠르고, 병해증이 없는 반면, 관리가 까다로운 단점이 있다.

분무경 양액재배는 작물을 틀에 고정시키고, 공기 중에 노출시킨 뿌리에 분무기로 물을 뿌리듯 양분(양액)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 농가는 3000m<sup>2</sup>에서 기준 2000kg에서 5100kg으로 2.5배, 조수입은 14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3.1배, 경영비를 뛰어난 소득은 1100만 원에서 3300만 원으로 3배 증가했다.

같은 땅에서 벼를 재배했을 때 연간 소득이 70만 원에 불과했던 것을 쪽파 양액재배를 통해 47배 많은 소득을 올린 셈이다.

부여 상주 재배 농가는 분무경 양액재배 방식을 택하며 연간 수억 원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농가는 3300m<sup>2</sup>의 시설하우스에 1억 5000만 원을 투입, 분무경 양액재배 시설을 설치했다.

분무경 양액재배는 작물을 틀에 고정시키고, 공기 중에 노출시킨 뿌리에 분무기로 물을 뿌리듯 양분(양액)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 재배법은 더 정밀한 양수분 관리가 가능해 생육이 빠르고, 병해증이 없는 반면, 관리가 까다로운 단점이 있다.

분무경 양액재배는 작물을 틀에 고정시키고, 공기 중에 노출시킨 뿌리에 분무기로 물을 뿐 아니라 양분(양액)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 농가는 3000m<sup>2</sup>에서 기준 2000kg에서 5100kg으로 2.5배, 조수입은 14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3.1배, 경영비를 뛰어난 소득은 1100만 원에서 3300만 원으로 3배 증가했다.

같은 땅에서 벼를 재배했을 때 연간 소득이 70만 원에 불과했던 것을 쪽파 양액재배를 통해 47배 많은 소득을 올린 셈이다.

부여 상주 재배 농가는 분무경 양액재배 방식을 택하며 연간 수억 원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농가는 3300m<sup>2</sup>의 시설하우스에 1억 5000만 원을 투입, 분무경 양액재배 시설을 설치했다.

분무경 양액재배는 작물을 틀에 고정시키고, 공기 중에 노출시킨 뿌리에 분무기로 물을 뿐 아니라 양분(양액)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 재배법은 더 정밀한 양수분 관리가 가능해 생육이 빠르고, 병해증이 없는 반면, 관리가 까다로운 단점이 있다.

분무경 양액재배는 작물을 틀에 고정시키고, 공기 중에 노출시킨 뿌리에 분무기로 물을 뿐 아니라 양분(양액)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 농가는 3000m<sup>2</sup>에서 기준 2000kg에서 5100kg으로 2.5배, 조수입은 14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3.1배, 경영비를 뛰어난 소득은 1100만 원에서 3300만 원으로 3배 증가했다.

같은 땅에서 벼를 재배했을 때 연간 소득이 70만 원에 불과했던 것을 쪽파 양액재배를 통해 47배 많은 소득을 올린 셈이다.

부여 상주 재배 농가는 분무경 양액재배 방식을 택하며 연간 수억 원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농가는 3300m<sup>2</sup>의 시설하우스에 1억 5000만 원을 투입, 분무경 양액재배 시설을 설치했다.

분무경 양액재배는 작물을 틀에 고정시키고, 공기 중에 노출시킨 뿌리에 분무기로 물을 뿐 아니라 양분(양액)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 재배법은 더 정밀한 양수분 관리가 가능해 생육이 빠르고, 병해증이 없는 반면, 관리가 까다로운 단점이 있다.

분무경 양액재배는 작물을 틀에 고정시키고, 공기 중에 노출시킨 뿌리에 분무기로 물을 뿐 아니라 양분(양액)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 농가는 3000m<sup>2</sup>에서 기준 2000kg에서 5100kg으로 2.5배, 조수입은 14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3.1배, 경영비를 뛰어난 소득은 1100만 원에서 3300만 원으로 3배 증가했다.

같은 땅에서 벼를 재배했을 때 연간 소득이 70만 원에 불과했던 것을 쪽파 양액재배를 통해 47배 많은 소득을 올린 셈이다.

부여 상주 재배 농가는 분무경 양액재배 방식을 택하며 연간 수억 원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농가는 3300m<sup>2</sup>의 시설하우스에 1억 5000만 원을 투입, 분무경 양액재배 시설을 설치했다.

분무경 양액재배는 작물을 틀에 고정시키고, 공기 중에 노출시킨 뿌리에 분무기로 물을 뿐 아니라 양분(양액)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 재배법은 더 정밀한 양수분 관리가 가능해 생육이 빠르고, 병해증이 없는 반면, 관리가 까다로운 단점이 있다.

분무경 양액재배는 작물을 틀에 고정시키고, 공기 중에 노출시킨 뿌리에 분무기로 물을 뿐 아니라 양분(양액)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 농가는 3000m<sup>2</sup>에서 기준 2000kg에서 5100kg으로 2.5배, 조수입은 14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3.1배, 경영비를 뛰어난 소득은 1100만 원에서 3300만 원으로 3배 증가했다.

같은 땅에서 벼를 재배했을 때 연간 소득이 70만 원에 불과했던 것을 쪽파 양액재배를 통해 47배 많은 소득을 올린 셈이다.

부여 상주 재배 농가는 분무경 양액재배 방식을 택하며 연간 수억 원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농가는 3300m<sup>2</sup>의 시설하우스에 1억 5000만 원을 투입, 분무경 양액재배 시설을 설치했다.

분무경 양액재배는 작물을 틀에 고정시키고, 공기 중에 노출시킨 뿌리에 분무기로 물을 뿐 아니라 양분(양액)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 재배법은 더 정밀한 양수분 관리가 가능해 생육이 빠르고, 병해증이 없는 반면, 관리가 까다로운 단점이 있다.

분무경 양액재배는 작물을 틀에 고정시키고, 공기 중에 노출시킨 뿌리에 분무기로 물을 뿐 아니라 양분(양액)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 농가는 3000m<sup>2</sup>에서 기준 2000kg에서 5100kg으로 2.5배, 조수입은 14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3.1배, 경영비를 뛰어난 소득은 1100만 원에서 3300만 원으로 3배 증가했다.

같은 땅에서 벼를 재배했을 때 연간 소득이 70만 원에 불과했던 것을 쪽파 양액재배를 통해 47배 많은 소득을 올린 셈이다.

부여 상주 재배 농가는 분무경 양액재배 방식을 택하며 연간 수억 원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농가는 3300m<sup>2</sup>의 시설하우스에 1억 5000만 원을 투입, 분무경 양액재배 시설을 설치했다.

분무경 양액재배는 작물을 틀에 고정시키고, 공기 중에 노출시킨 뿌리에 분무기로 물을 뿐 아니라 양분(양액)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 재배법은 더 정밀한 양수분 관리가 가능해 생육이 빠르고, 병해증이 없는 반면, 관리가 까다로운 단점이 있다.

</div

## 동정

## 성금 전달



박경기 아산시장  
=15일 오전 10시  
선문대학교 아산  
캠퍼스에서 열리  
는 '선문대학교  
2024년 전기 학위  
수여식', 오전 11시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에서 열리는 '아산시여성단체  
체험의회 월례회의', 오후 1시 40분  
서천군청에서 열리는 '서천래시  
장 화재 성금 전달'에 참석.

## 연시총회



가세로 태안군수  
=15일 오전 9시  
30분 태안군농업  
기술센터에서 열  
리는 '친환경농업  
연구회 연시총회'  
에 참석.

## 창립총회



김돈곤 청양군수  
=15일 오전 11시  
농업기술센터에  
서 열리는 구기자  
연구회 창립총회  
에 참석.

청양군 자매도시 강동구 방문  
'어린이 문화체험단' 모집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겨울방학을 맞아 아자매도시 강동구를 방문한 '어린이 문화체험단'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청양군에 주소를 둔 지역 내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16명이다. 모집 기간은 2월 13일부터 18일 18시까지다.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는 청양군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어린이 문화체험단'은 자매도시 간 상호교류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체험하고 우호를 증진하고자 마련했으며 강동 구와는 매년 추진하였다.

올해도 각 도시 문화체험단은 지역의 주요 명소를 견학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미 강동구 문화체험단은 지난 7월 청양군을 방문하여 백제 문화체험관과 알프스마을을 방문해 체험을 쌓았다.

청양군 문화체험단은 오는 21일에 박물관과 아쿠아리움, 서울스카이를 방문할 예정이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자매도시 간 어린이들이 교류를 통해 서로 다른 지역의 문화를 경험하면서 한다."며 "어린이 문화교류를 통해 자매도시 간 우호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청양=정상범기자

## 태안군 설날장사 씨름대회 열려

## 지역 곳곳 '활기'... 씨름대회 연일 구름관중·최성민 선수 고향서 백두장사 등극



2월 7~12일 충남 태안군에서 열린 '2024 설날장사 씨름대회'가 연일 만원관중을 기록하는 열기 속에 태안군청 소속 최성민 선수의 백두 장사 등극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군에 따르면, 최성민(22, 태안군청) 선수는 설날장사 씨름대회 마지막 날인 12일 태안종합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백두장사 결정전에서 '맞수' 김민재(22, 영암군민속씨름단) 선수를 3-2로 제압하고 통산 5번째 장사에 등극하는 기염을 토했다.

태안 백화초-태안중-태안고를 졸업하고 2021년 1월 태안군청에 입단한 최 선수는 입단 첫해 인제 장사 씨름대회를 시작으로 2022년 설날장사 대회, 징후장사 대회, 보은장사 대회에서 연이어 백두장사에 올랐으며, 이날 고향 태안에서 종합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세 번째

열린 대회의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하며 군민들에게 큰 기쁨을 안겼다.

한편, 이번 대회는 2021년 추석 장사 씨름대회와 2022년 대통령배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에 이어 태안

씨름대회로, 대한씨름협회 및 태안 씨름협회의 철저한 사전준비와 태안군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성공적인 대회를 치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회기간 중 태안고 씨름부와의 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모범운전자

회, 해병전우회, 태안여객, 태안군체육회 등에서 연인원 232명이 자원봉사에 나섰으며,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관중들의 즉석사진을 찍어 출력해주는 봉사에 나서는 등 각종 이벤트도 함께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특히, 총 2046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관에 9일 2000여 명, 10일 2800여 명, 11일 3200여 명, 12일 3700여 명이 입장하는 등 6일간 총 1만 3천여 명이 경기장을 찾아 관중들이 복도 및 계단을 꽉 채우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씨름대회 외에도, 태안지역에서는 설 연휴기간 중 많은 귀성객과 관광객들이 고향 및 주요 관광지를 찾아 지역 곳곳에서 인전하고 평온한 설 명절을 보냈다.

태안=김정한기자

## 우/리/동/네



##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총력'

## 아산시, 기본 개인위생 수칙 홍보 힘써달라

13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주간 간부회의에서 박경기 아산시장은 최근 관내 오리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발견되자, 해당 농가에서 사육 중인 오리 2만 9천 마리를 살처분했다. 또, 농가 주변에 통제초소 2곳을 설치하고 차량과 사람의 통행을 통제하고 있으며,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박 시장은 "다행히 해당 농가 주변 반경 500m 이내 가금류 사육 농가가 없어 추가 살처분 대상은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아직 직접적인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만큼 타지역 사례를 반영해 협동방지 방지에 철저히 기하라"고 지시했다.

시는 종남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진행한 가금농가 정기 검사에서 둑포면 소재 한 오리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발견되자, 해당 농가에서 사육 중인 오리 2만 9천 마리를 살처분했다. 또, 농가 주변에 통제초소 2곳을 설치하고 차량과 사람의 통행을 통제하고 있으며,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박 시장은 "다행히 해당 농가 주변 반경 500m 이내 가금류 사육 농가가 없어 추가 살처분 대상은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아직 직접적인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만큼 타지역 사례를 반영해 협동방지 방지에 철저히 기하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사례가 없지만,

해외에서는 인체감염으로 사망한 사례도 보고된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출입 차량 소독, 축산농가·철도 대체 방문 자체, 아생 조류·가금류 등 사체 접촉 피하기, 손 씻기 등 기본 개인위생 수칙 홍보에 힘써달라"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역 협력체계 강화, 대응 체계 점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지난 7일 천안시청에서 열린 충남도의 베이밸리 비전 선포식 관련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충남 북부와 경기 남부를 아우르는 그랜드플랜'이라서 그 기획의 핵심 무대는 바로 아산"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김태흠 충남지사의 '베이밸리 메가시티' 비전에 트라이포트 아산항 건설이 포함된 것은 굉장히 성과"라고 자평하며 "도의 비전 선포에 이은 아산시의 후속 조치, 전략 과제 등을 시민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해 홍보하자"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은 현재 국토교통부에 반대 의견을 제출한 공주·천안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해서도 입장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공주·천안 고속도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노선은 아산시 최초 고속도로인 아산·천안 고속도로는 물론, 아산시 주요도로인 21번 국도, 43번 국도와 연결되지 않아 실익이 없다. 아산시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방 신도시 지역 터널 추진에 따른 안전 문제는 물론, 아산시와 충남도가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종합기반 구축 사업'에도 제약을 줄 것'이라면서 "아산시가 제시한 대안 노선이 채택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김태흠 충남지사의 '베이밸리 메가시티' 비전에 트라이포트 아산항 건설이 포함된 것은 굉장히 성과"라고 자평하며 "도의 비전 선포에 이은 아산시의 후속 조치, 전략 과제 등을 시민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해 홍보하자"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사례가 없지만,

해외에서는 인체감염으로 사망한 사례도 보고된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출입 차량 소독, 축산농가·철도 대체 방문 자체, 아생 조류·가금류 등 사체 접촉 피하기, 손 씻기 등 기본 개인위생 수칙 홍보에 힘써달라"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역 협력체계 강화, 대응 체계 점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지난 7일 천안시청에서 열린 충남도의 베이밸리 비전 선포식 관련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충남 북부와 경기 남부를 아우르는 그랜드플랜'이라서 그 기획의 핵심 무대는 바로 아산"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김태흠 충남지사의 '베이밸리 메가시티' 비전에 트라이포트 아산항 건설이 포함된 것은 굉장히 성과"라고 자평하며 "도의 비전 선포에 이은 아산시의 후속 조치, 전략 과제 등을 시민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해 홍보하자"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사례가 없지만,

해외에서는 인체감염으로 사망한 사례도 보고된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출입 차량 소독, 축산농가·철도 대체 방문 자체, 아생 조류·가금류 등 사체 접触 피하기, 손 씻기 등 기본 개인위생 수칙 홍보에 힘써달라"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역 협력체계 강화, 대응 체계 점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지난 7일 천안시청에서 열린 충남도의 베이밸리 비전 선포식 관련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충남 북부와 경기 남부를 아우르는 그랜드플랜'이라서 그 기획의 핵심 무대는 바로 아산"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김태흠 충남지사의 '베이밸리 메가시티' 비전에 트라이포트 아산항 건설이 포함된 것은 굉장히 성과"라고 자평하며 "도의 비전 선포에 이은 아산시의 후속 조치, 전략 과제 등을 시민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해 홍보하자"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사례가 없지만,

해외에서는 인체감염으로 사망한 사례도 보고된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출입 차량 소독, 축산농가·철도 대체 방문 자체, 아생 조류·가금류 등 사체 접触 피하기, 손 씻기 등 기본 개인위생 수칙 홍보에 힘써달라"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역 협력체계 강화, 대응 체계 점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사례가 없지만,

해외에서는 인체감염으로 사망한 사례도 보고된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출입 차량 소독, 축산농가·철도 대체 방문 자체, 아생 조류·가금류 등 사체 접触 피하기, 손 씻기 등 기본 개인위생 수칙 홍보에 힘써달라"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역 협력체계 강화, 대응 체계 점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 소규모 건축물 해체 현장 안전 점검

## 당진시,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산업재해 예방 기대

전 확보를 위해 안전 점검에 나섰다.

점검 대상은 24년도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중연면적 100㎡ 이상 또는 2층 이상의 건축물로 ▲건설장비 운용 기준 준수 및 작업자 안전장비 착용 여부 ▲인접 건축물, 보행자와 차량에 대한 안전대책 준수 여부 ▲남침먼지·폐기물 관리 등 해체공사장 환경관리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지적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법령 위반 등 중대한 사항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당진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안전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축주와 건설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해 시민 안전 확보 및 산업재해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당진=최근수기자

## 청남면 수해의 상처 딛고 청양의 시설원예 중심지로 돌아오다



지난해 7월 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봤던 청남면(면장 한은규)이 2023년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평균 549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진 청남면은 대형 배수장인 균 제방 붕괴로 공공 및 사유 시설 등

물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자발적으로 '청남면 호우피해 대책 위원회'를 결성하여 마을별 가용 자원 총동원 및 복구 지원, 피해 현황 조사 등 피해 극복을 위하여 노력했다.

이에 따라, 시설원예에 주목한 1~2월 작기를 시작으로 4~5월 수확을 기대하고 있다.

한은규 청남면장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좌시하지 않고 함께해 주신 수많은 봉사자, 기탁·기부자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한 청남면 농민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며 "그분들의 노고 덕분에 청남면은 청양의 시설원예 중심지로서 더욱 발전해 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청양=정상범기자

## 아산시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검사비 지원

아산시(시장 박경기) 보건소가 올해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 혈증 등록 환자의 합병증 검사를 지원한다.

고혈압 등 심뇌혈관질환은 질병

부담이 크고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로 예방관리가 중요하다. 검사 항목으로는 ▲뇌경색 또는 심근경색이 일어날 가능성을 예측 할 수 있는 경동맥 초음파 및 ▲만성

신장질환 합병증 발견을 위한 미세 단백뇨 ▲당뇨병성 망막변증 조기 발견을 위한 안과 검사 ▲합병증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 당화혈색소 검사가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 당진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성료'

## 총 6525명 참석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호응 속 마무리

당진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월 9일부터 30일까지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추진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당진농(1, 2, 3농), 합덕읍을 시작으로 고대면까지 총 32개 24회에 걸쳐 체계적으로 영농설계를 하도록 안내하며 공익직불제 교육과 연계해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또한 계획했던 인원보다 233%나 더 많

</

우리/동/네

# 평생학습 이용권 지원사업 준비 박차

계룡시, 지난 13일부터 3월 8일까지 평생학습 이용권 사용기관 집중등록 기간 운영



**논산시 농식품 해외박람회 사전 점검** 오는 14일부터 16일 까지 진행되는 논산시 농식품 해외박람회 행사 개최를 위해 13일 출국 한 백성현 논산시장은 태국 방콕 첫 공식 일정으로 행사가 개최되는 시 암파라곤 행정사장의 곳곳을 둘러보며 사전 점검을 꼼꼼히 진행하고, 행사준비에 심혈을 기울였다.

## 부여군 ‘공유누리’ 활성화

주차장 등 190여 개의 공공자원 등록 개방·공유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공공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국민 편의증진을 위해 ‘공유누리’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유누리’는 공공부문에서 개방하는 시설, 물품 등 공공개방자원을 전국민이 온라인에서 쉽고 편리하게 검색하고 예약하는 공공개방자원 공유플랫폼이다.

부여군은 현재 주차장, 회의실, 농업기계 장비 등 190여개의 공공자원이 등록되어 개방·공유 중이다.

군은 더 많은 자원을 국민에게 공유하기 위해 신규 자원 발굴에 나섰으며, 교육·강좌 프로그램 등을 추가 등록하고 기존 등록자원을 현행화할 계획이다.

공공자원의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공유누리(www.esharego.kr) 또는 공유누리 앱에서 원하는 자원을 확인하거나 예약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누리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공유자원 발굴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계룡시 어르신 백내장 수술비 지원

만 65세 이상… 한쪽 눈 당 30만원·최대 60만원까지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눈 건강과 수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작년 3월 시작한 ‘백내장 수술비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백내장은 신생체의 혼탁으로 인해 사물이 뿌옇게 보이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의 하나로 주원인은 신청일 기준 계룡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주민이며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백내장 수술 후 병원에서 백내장 진단서를 비롯한 구비서류를 준비해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되며, 보건소는 지급 결정성 검토 후 한쪽 눈 30만 원, 양쪽 눈 60만 원 한도로 수술비를 지원한다.

계룡시 보건소는 어르신 백내장 수술비 지원 외에도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국실명예방재단과 연계한 눈 수술비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난 해에만 지역 어르신 107명에게 약 50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한 바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역 내 어르신들의 눈 건강을 위해 대상자 발굴 및 수술비 지원을 지속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백내장 수술비 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 보건소 진료팀(042-840-3550~1)에 문의하면 된다.



**가수 박민수, 팬클럽 비티민수와 서천 특화시장 피해복구에 500만원 기탁** 가수 박민수가 팬클럽 비티민수와 함께 서천 특화시장 화재 피해복구를 위해 500만원을 기탁했다. 지난해 서천군에 1000만원을 기탁하고 충남고향사랑기부제의 홍보대사로 발탁된 후 두 번째 성금 기탁이다. 박민수는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 개인 최고 한도 액인 500만원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50만원을 기부하며 서천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여줬으며, 특히 이번 기부를 팬클럽 비티민수 회원들과 함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톡톡하쥬! 똑똑해유~ 모바일 치매 예방교육 인기

부여군, 카카오톡 AI 챗봇 함께하는 치매인지 항상 프로그램 인기



##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흡연자들을 위한 맞춤형 금연서비스 제공

논산시보건소, 6개월간 금연 성공자에게 소정의 상품 지급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논산시보건소에서 오는 16일까지 사업장, 기관, 단체 등에서 10명 이상의 흡연자들이 참여를 희망하는 곳에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동 금연클리닉은 보건소 금연상담사가 사업장이나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기초 건강조사와 1대 1 맞춤형 상담을 통해 개인에 맞는 행동요법과 금연보조제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동 금연클리닉에 참여한 흡연자는 사업장이나 기관, 단체는 논

자들은 6개월간 금연에 도전하며,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지급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동 금연클리닉을 통해 시간적이고 경제적 제약으로 보건소 방문이 어려웠던 흡연자들의 금연 실천율을 높이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여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동 금연클리닉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이나 기관, 단체는 논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카카오톡을 활용한 치매 예방프로그램 ‘톡톡하쥬! 똑똑해유~’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부여군 치매안심센터의 톡톡하쥬! 똑똑해유~ 프로그램은 스마트폰 카카오톡 내 AI를 활용해 종 5개 영역(언어능력, 기억력, 주의력, 계산능력, 실행 능력)에서 인지 강화 훈련을 할 수 있다.

앱 설치가 필요 없고 카카오톡에서 채널 추가만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참여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인지능력 향상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 관계자는 “평생학습 이용권 사업을 통해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 확대 및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시민들의 학습 보장을 위해 다양화한 분야의 기관이 사용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평생학습 이용권 사용기관 등록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평생교육과 평생학습팀(042-840-2592)에 문의하면 된다.

계룡=김성구기자



박정현 부여군수= 15일 오전 10시 30분 여성문화회관 3층 제121회 충남시군의회 의정협의회 정례회에 참석, 오후 2시 30분 집무실 부여군 애플우드농업회사법인 업무협약에 참석.

### 재정연찬회



김기웅 서천군수= 15일 오전 9시 군청 4층 주민소통실에서 열리는 서천특화시장 화재 복구대응 점검회의에 참석, 오전 11시 서천문화예전당 소강당에서 열리는 제1회 서천군 중학학력 인정 문해교육 출입식에 참석, 오후 1시 국립생태원에서 열리는 2024년 도시군 재정연찬회에 참석.



## 문산시랑후원회, 2024년 정기총회 열려

서천군 문산시랑후원회(회장 김춘기)가 지난 13일 지난해 사업 결산 및 성과 보고, 올해 신규사업 논의 및 예산 심의·의결 등 202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와 같이 나눔 물품 꾸려미 전달 사업 및 입학·졸업식 장학금 지원사업 등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올해 신규사업으로 이동식 방문목욕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시보건소 금연클리닉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내소를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니, 금연을 희망하는 주민

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논산시보건소 관계자는 말했다.

부여=김성구기자



## 논산시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 확대한다

논산시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총 853대를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로 지난해와 다르게 경유자동차 4등급은 DPF부착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한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 가스 누리집(https://www.mecator.kr/)에서 운리인 신청하거나 논산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등기우편을 통해 2월 15일부터 8월 30일 까지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하거나 논산시청 환경과(041-746-5933) 또는 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1577-7121)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 미이행으로 불이익을 보는 시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오프라인 활용한 제도를 통해 함께 아이 키우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 미이행으로 불이익을 보는 시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오프라인 활용한 제도를 통해 함께 아이 키우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서천군보건소 임산부·영유아 대상 요리 교실 운영



### 주택임대차 계약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종료 흥보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오는 5월 31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로부터 30일 이내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도입 후 3년의 계도기간을 설정했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임대차 계약 중 주거용 건물에 대한 보증금이 6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차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으로 간접계약의 경우 금액 보증금 또는 임차료 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 대상이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임대차 계약 중 주거용 건물에 대한 보증금이 6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차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으로 간접계약의 경우 신고 대상이다.

건물에 대한 보증금이 6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차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으로 간접계약의 경우 신고 대상이다.

건물에 대한 보증금이 6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차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으로 간접계약의 경우 신고 대상이다.

건물에 대한 보증금이 6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차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으로 간접계약의 경우 신고 대상이다.

건물에 대한 보증금이 6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차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으로 간접계약의 경우 신고 대상이다.

건물에 대한 보증금이 6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차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으로 간접계약의 경우 신고 대상이다.

건물에 대한 보증금이 6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차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으로 간접계약의 경우 신고 대상이다.

건물에 대한 보증금이 6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차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으로 간접계약의 경우 신고 대상이다.

건물에 대한 보증금이 6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차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으로 간접계약의 경우 신고 대상이다.

건물에 대한 보증금이 6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차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으로 간접계약의 경우 신고 대상이다.

건물에 대한 보증금이 6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차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으로 간접계약의 경우 신고 대상이다.

건물에 대한 보증금이 6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차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으로 간접계약의 경우 신고 대상이다.

건물에 대한 보증금이 6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차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으로 간접계약의 경우 신고 대상이다.

건물에 대한 보증금이 6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차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으로 간접계약의 경우 신고 대상이다.

건물에 대한 보증금이 6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차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으로 간접계약의 경우 신고 대상이다.

건물에 대한 보증금이 6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차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으로 간접계약의 경우 신고 대상이다.

건물에 대한 보증금이 6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차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으로 간접계약의 경우 신고 대상이다.

건물에 대한 보증금이 6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차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으로 간접계약의 경우 신고 대상이다.

건물에 대한 보증금이 6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차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으로 간접계약의 경우 신고 대상이다.

건물에 대한 보증금이 6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차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으로 간접계약의 경우 신고 대상이다.

건물에 대한 보증금이 6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차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으로 간접계약의 경우 신고 대상이다.

건물에 대한 보증금이 6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차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으로 간접계약의 경우 신고 대상이다.

건물에 대한 보증금이 6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차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으로 간접계약의 경우 신고 대상이다.

건물에 대한 보증금이 600만 원을 초과하거나

## 정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 위원회



최원철 공주시장 =  
15일 오후 2시 농  
업회관에서 열리  
는 공주시 농업농  
촌 혁신 발전 위원  
회 위원회 참석.

## 설 발전 워크숍



김동일 보령시장  
= 15일 오후 1시  
30분 호텔 콜레르  
에서 설 발전 워크  
숍 참석.

## 서산소식 시민기자단위원회



이완섭 서산시장 =  
15일 오전 11시 서  
산시청 상황실에  
서 열리는 서산소  
식 시민기자단위  
체 회의 참석, 오후 1  
시 30분 성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는 성연면 새농업인 실용교육  
에 참석, 오후 3시 서산시청 중회의  
실에서 열리는 노인 및 장애인 복지  
관 건립 용역 보고회 참석.

## 대한노인회 사업 발대식



박범인 금산군수 =  
15일 오전 9시 금  
산디락원 대공연  
장에서 열리는 대  
한노인회 사업 발  
대식 참석.

## 공주시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 관내 농업인 대상 무료 토양검정



공주시(시장 최원철)가 공주시농업기술  
센터 내 위치한 농업환경연구관 1층 종합  
검정실에서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토양  
과 가축분뇨 퇴비비, 토양선충, 농업용수를  
무료로 분석해 주고 있다.

토양검정은 작물 재배 전 필수로 이뤄져  
야 할 과정으로 농경지의 토양 산도, 유기  
물, 유효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 함량과  
전기전도도를 분석해 한 작기 동안 필요한  
적정 비료량을 산정해 알려주기 때문에 저  
부입으로 높은 생산량을 얻을 수 있다.

종합검정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  
시(공휴일 및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까지 운영하고 있다.

토양검정은 희망하는 농업인은 토양시  
료와 함께 종합검정실을 방문하면 된다.

정확한 토양검정 결과를 위해 토양시  
료 제취 방법을 제대로 알고 실행하는 게 중  
요한데, 농경지 표면의 겉흙을 1~2cm 정도  
제거한 뒤 V자 흙을 파서 첫 삽은 떠내어 버  
린 후, V자 흙의 옆면을 15cm(논·밭) 또는  
30cm(과수) 깊이로 채취한다.

채취한 시료가 농경지 전체를 대표할 수  
있도록 앞의 과정을 반복해 5군데 이상 채  
취한 시료를 한 테 고루 섞어 최종 500g을  
제출하면 검정 결과를 분석의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문자, 우편, 방문, 전자우편, 팩  
스로 받아볼 수 있다.

한편 시에 따르면, 매년 종합검정실을  
방문하는 800여 농가 중 약 600명은 토양  
검정을 위해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김희영 기술보급과장은 “매년 한 해 농사  
시작 전 토양검정을 통한 적정 비료 주기로  
경비 절감과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으면 좋겠다.”며 “올 한  
해도 풍년 농사를 위해 종합검정실을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 세계적 수준 명품 공연 선봬

금산다락원, 올해 개관 20주년 클래식 · 뮤지컬 · 연극 · 대중음악 등 11개 기념공연 개최

금산다락원은 올해 개관 20주년을  
맞아 세계적 수준의 명품 공연  
을 통해 감동을 선사한다.

준비된 기념공연은 총 11개 작품  
으로 품격과 격조의 세계적 클래식,  
코미디와 감동의 뮤지컬·연극,  
국내 최고 실력파 가수들의 대중음  
악, 어린이와 청소년 뮤지컬 등으  
로 꾸며졌다.

또한 20주년에 걸맞은 풍성한  
공연을 선보일 수 있도록 올해 공  
모를 통한 뮤지컬, 발레 등 공연을  
추가할 방침이다.

올해 첫 공연으로는 이달 20일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 콩쿠  
르 우승자 초청 신년음악회가 개최  
된다.

이번 음악회는 BBC 카디프 국  
제 성악 콩쿠르에서 우승한 테너  
김성호, 지난해 차이코프스키 콩쿠  
르 준우승 베이스 정인호, 비나스  
국제 성악 콩쿠르 우승자 소프라노  
한예원이 무대에 함께 새운 봄  
에 대한 희망과 열정을 아름다운  
목소리로 전한다.

금산다락원은 올해 개관 20주년  
을 맞아 세계적 수준의 명품 공연  
을 통해 감동을 선사한다.

준비된 기념공연은 총 11개 작품  
으로 품격과 격조의 세계적 클래식,  
코미디와 감동의 뮤지컬·연극,  
국내 최고 실력파 가수들의 대중음  
악, 어린이와 청소년 뮤지컬 등으  
로 꾸며졌다.

또한 20주년에 걸맞은 풍성한  
공연을 선보일 수 있도록 올해 공  
모를 통한 뮤지컬, 발레 등 공연을  
추가할 방침이다.

올해 첫 공연으로는 이달 20일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 콩쿠  
르 우승자 초청 신년음악회가 개최  
된다.

이번 음악회는 BBC 카디프 국  
제 성악 콩쿠르에서 우승한 테너  
김성호, 지난해 차이코프스키 콩쿠  
르 준우승 베이스 정인호, 비나스  
국제 성악 콩쿠르 우승자 소프라노  
한예원이 무대에 함께 새운 봄  
에 대한 희망과 열정을 아름다운  
목소리로 전한다.

금산다락원은 올해 개관 20주년  
을 맞아 세계적 수준의 명품 공연  
을 통해 감동을 선사한다.

준비된 기념공연은 총 11개 작품  
으로 품격과 격조의 세계적 클래식,  
코미디와 감동의 뮤지컬·연극,  
국내 최고 실력파 가수들의 대중음  
악, 어린이와 청소년 뮤지컬 등으  
로 꾸며졌다.

또한 20주년에 걸맞은 풍성한  
공연을 선보일 수 있도록 올해 공  
모를 통한 뮤지컬, 발레 등 공연을  
추가할 방침이다.

올해 첫 공연으로는 이달 20일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 콩쿠  
르 우승자 초청 신년음악회가 개최  
된다.

이번 음악회는 BBC 카디프 국  
제 성악 콩쿠르에서 우승한 테너  
김성호, 지난해 차이코프스키 콩쿠  
르 준우승 베이스 정인호, 비나스  
국제 성악 콩쿠르 우승자 소프라노  
한예원이 무대에 함께 새운 봄  
에 대한 희망과 열정을 아름다운  
목소리로 전한다.

금산다락원은 올해 개관 20주년  
을 맞아 세계적 수준의 명품 공연  
을 통해 감동을 선사한다.

준비된 기념공연은 총 11개 작품  
으로 품격과 격조의 세계적 클래식,  
코미디와 감동의 뮤지컬·연극,  
국내 최고 실력파 가수들의 대중음  
악, 어린이와 청소년 뮤지컬 등으  
로 꾸며졌다.

또한 20주년에 걸맞은 풍성한  
공연을 선보일 수 있도록 올해 공  
모를 통한 뮤지컬, 발레 등 공연을  
추가할 방침이다.

올해 첫 공연으로는 이달 20일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 콩쿠  
르 우승자 초청 신년음악회가 개최  
된다.

이번 음악회는 BBC 카디프 국  
제 성악 콩쿠르에서 우승한 테너  
김성호, 지난해 차이코프스키 콩쿠  
르 준우승 베이스 정인호, 비나스  
국제 성악 콩쿠르 우승자 소프라노  
한예원이 무대에 함께 새운 봄  
에 대한 희망과 열정을 아름다운  
목소리로 전한다.

금산다락원은 올해 개관 20주년  
을 맞아 세계적 수준의 명품 공연  
을 통해 감동을 선사한다.

준비된 기념공연은 총 11개 작품  
으로 품격과 격조의 세계적 클래식,  
코미디와 감동의 뮤지컬·연극,  
국내 최고 실력파 가수들의 대중음  
악, 어린이와 청소년 뮤지컬 등으  
로 꾸며졌다.

또한 20주년에 걸맞은 풍성한  
공연을 선보일 수 있도록 올해 공  
모를 통한 뮤지컬, 발레 등 공연을  
추가할 방침이다.

올해 첫 공연으로는 이달 20일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 콩쿠  
르 우승자 초청 신년음악회가 개최  
된다.

이번 음악회는 BBC 카디프 국  
제 성악 콩쿠르에서 우승한 테너  
김성호, 지난해 차이코프스키 콩쿠  
르 준우승 베이스 정인호, 비나스  
국제 성악 콩쿠르 우승자 소프라노  
한예원이 무대에 함께 새운 봄  
에 대한 희망과 열정을 아름다운  
목소리로 전한다.

금산다락원은 올해 개관 20주년  
을 맞아 세계적 수준의 명품 공연  
을 통해 감동을 선사한다.

준비된 기념공연은 총 11개 작품  
으로 품격과 격조의 세계적 클래식,  
코미디와 감동의 뮤지컬·연극,  
국내 최고 실력파 가수들의 대중음  
악, 어린이와 청소년 뮤지컬 등으  
로 꾸며졌다.

또한 20주년에 걸맞은 풍성한  
공연을 선보일 수 있도록 올해 공  
모를 통한 뮤지컬, 발레 등 공연을  
추가할 방침이다.

올해 첫 공연으로는 이달 20일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 콩쿠  
르 우승자 초청 신년음악회가 개최  
된다.

이번 음악회는 BBC 카디프 국  
제 성악 콩쿠르에서 우승한 테너  
김성호, 지난해 차이코프스키 콩쿠  
르 준우승 베이스 정인호, 비나스  
국제 성악 콩쿠르 우승자 소프라노  
한예원이 무대에 함께 새운 봄  
에 대한 희망과 열정을 아름다운  
목소리로 전한다.

금산다락원은 올해 개관 20주년  
을 맞아 세계적 수준의 명품 공연  
을 통해 감동을 선사한다.

준비된 기념공연은 총 11개 작품  
으로 품격과 격조의 세계적 클래식,  
코미디와 감동의 뮤지컬·연극,  
국내 최고 실력파 가수들의 대중음  
악, 어린이와 청소년 뮤지컬 등으  
로 꾸며졌다.

또한 20주년에 걸맞은 풍성한  
공연을 선보일 수 있도록 올해 공  
모를 통한 뮤지컬, 발레 등 공연을  
추가할 방침이다.

올해 첫 공연으로는 이달 20일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 콩쿠  
르 우승자 초청 신년음악회가 개최  
된다.

이번 음악회는 BBC 카디프 국  
제 성악 콩쿠르에서 우승한 테너  
김성호, 지난해 차이코프스키 콩쿠  
르 준우승 베이스 정인호, 비나스  
국제 성악 콩쿠르 우승자 소프라노  
한예원이 무대에 함께 새운 봄  
에 대한 희망과 열정을 아름다운  
목소리로 전한다.

금산다락원은 올해 개관 20주년  
을 맞아 세계적 수준의 명품 공연  
을 통해 감동을 선사한다.

준비된 기념공연은 총 11개 작품  
으로 품격과 격조의 세계적 클래식,  
코미디와 감동의 뮤지컬·연극,  
국내 최고 실력파 가수들의 대중음  
악, 어린이와 청소년 뮤지컬 등으  
로 꾸며졌다.

또한 20주년에 걸맞은 풍성한  
공연을 선보일 수 있도록 올해 공  
모를 통한 뮤지컬, 발레 등 공연을  
추가할 방침이다.

올해 첫 공연으로는 이달 20일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 콩쿠  
르 우승자 초청 신년음악회가 개최  
된다.

이번 음악회는 BBC 카디프 국  
제 성악 콩쿠르에서 우승한 테너  
김성호, 지난해 차이코프스키 콩쿠  
르 준우승 베이스 정인호, 비나스  
국제 성악 콩쿠르 우승자 소프라노  
한예원이 무대에 함께 새운 봄  
에 대한 희망과 열정을 아름다운  
목소리로 전한다.

금산다락원은 올해 개관 20주년  
을 맞아 세계적 수준의 명품 공연  
을 통해 감동을 선사한다.

준비된 기념공연은 총 11개 작품  
으로 품격과 격조의 세계적 클래식,  
코미디와 감동의 뮤지컬·연극,  
국내 최고 실력파 가수들의 대중음  
악, 어린이와 청소년 뮤지컬 등으  
로 꾸며졌다.

또한 20주년에 걸맞은 풍성한  
공연을 선보일 수 있도록 올해 공  
모를 통한 뮤지컬, 발레 등 공연을  
추가할 방침이다.

올해 첫 공연으로는 이달 20일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 콩쿠  
르 우승자 초청 신년음악회가 개최  
된다.

이번 음악회는 BBC 카디프 국  
제 성악 콩쿠르에서 우승한 테너  
김성호, 지난해 차이코프스키 콩쿠  
르 준우승 베이스 정인호, 비나스  
국제 성악 콩쿠르 우승자 소프라노  
한예원이 무대에 함께 새운 봄  
에 대한 희망과 열정을 아름다운  
목소리로 전한다.

금산다락원은 올해 개관 20주년  
을 맞아 세계적 수준의 명품 공연  
을 통해 감동을 선사한다.

준비된 기념공연은 총 11개 작품  
으로 품격과 격조의 세계적 클래식,  
코미디와 감동의 뮤지컬·연극,  
국내 최고 실력파 가수들의 대중음  
악, 어린이와 청소년 뮤지컬 등으  
로 꾸며졌다.

또한 20주년에 걸맞은 풍성한  
공연을 선보일 수 있도록 올해 공  
모를 통한 뮤지컬, 발레 등 공연을  
추가할 방침이다.

올해 첫 공연으로는 이달 20일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 콩쿠  
르 우승자 초청 신년음악회가 개최  
된다.

이번 음악회는 BBC 카디프 국  
제 성악 콩쿠르에서 우승한 테너  
김성호, 지난해 차이코프스키 콩쿠  
르 준우승 베이스 정인호, 비나스  
국제 성악 콩쿠르 우승자 소프라노  
한예원이 무대에 함께 새운 봄  
에 대한 희망과 열정을 아름다운  
목소리로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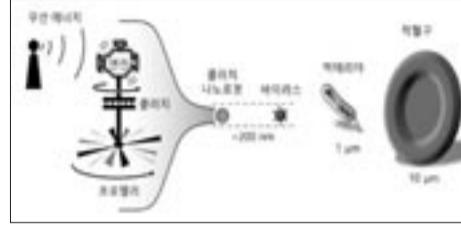
금산다락원은 올해 개관 20주년  
을 맞아 세계적 수준의 명품 공연  
을 통해 감동을 선사한다.

준비된 기념공연은 총 11개 작품  
으로 품격과 격조의 세계적 클래식,  
코미디와 감동의 뮤지컬·연극,  
국내 최고 실력파 가수들의 대중음  
악, 어린이와 청소년 뮤지컬 등으  
로 꾸며졌다.

또한 20주년에 걸맞은 풍성한  
공연을 선보일 수 있도록 올해 공  
모를 통한 뮤지컬, 발레 등 공연을  
추가할 방침이다.

## 유전자 신호 감지 스스로 클러치 작동 스마트 나노로봇 개발

### IBS 나노의학 연구단, 세계 최초로 나노로봇에 클러치 기능 탑재



우리 몸속에서 세포보다 작은 크기의 초소형 로봇이 스스로 질병을 찾아내고 치료도 한다.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등장할 법한 이야기가 최신 지능형 나노로봇의 등장으로 곧 현실이 될 전망이다.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장 노도영) 나노의학 연구단 천진우 단장(연세대 언더우드 특훈교수) 연구팀은 유전자 신호를 감지해 스스로 클러치를 작동하는 생체 나노로봇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200nm(1크기의 극미세

DNA로 코팅되어 있다. 로터 표면의 구멍을 통해 환경인자가 내부로 유입되어 특정 유전자 신호를 감지하면, 로터와 엔진에 코팅된 DNA 가닥이 서로 결합해 엔진의 힘을 로터로 전달하는 ‘클러치’ 역할을 한다.

DNA 클러치가 작동하면 엔진에서 발생하는 피코 뉴턴(pN)의 힘이 로터로 전달되어 나노로봇이 웨리콥터의 프로펠러처럼 회전한다. 자성을 가진 엔진을 사용했기 때문에 인체 외부에서 자력을 이용해 무선으로 로봇 제어가 가능하다. 자기장의 방향에 따라 회전력의 발생 방향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도 있다.

DNA 클러치는 20개의 염기서열로 이루어져 있어 무한대에 가까운(420~1조 개) 질병 인지를 감지하도록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무수히 많은 정보를 코딩해

DNA로 코팅되어 있다. 로터 표면의 구멍을 통해 환경인자가 내부로 유입되어 특정 유전자 신호를 감지하면, 로터와 엔진에 코팅된 DNA 가닥이 서로 결합해 엔진의 힘을 로터로 전달하는 ‘클러치’ 역할을 한다.

DNA 클러치가 작동하면 엔진에서 발생하는 피코 뉴턴(pN)의 힘이 로터로 전달되어 나노로봇이 웨리콥터의 프로펠러처럼 회전한다. 자성을 가진 엔진을 사용했기 때문에 인체 외부에서 자력을 이용해 무선으로 로봇 제어가 가능하다. 자기장의 방향에 따라 회전력의 발생 방향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도 있다.

DNA 클러치는 20개의 염기서열로 이루어져 있어 무한대에 가까운(420~1조 개) 질병 인지를 감지하도록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무수히 많은 정보를 코딩해

기억 및 연산 기능을 가지는 ‘나노로봇의 지능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이오 나노로봇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페어 피셔 교수는 본 연구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나노로봇이며, 특히 지능형 나노로봇 발전에 있어 퀸텟 접두사를 이룬 연구”라고 평했다.

천진우 단장은 “정보의 프로그램화가 가능한 클러치가 구현되었다는 것은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로봇이 스스로 주변을 감지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먼저 진단이나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 나노로봇이 개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연구성과는 국제 저명 학술지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Nature Nanotechnology, IF 40523)’에 2월 7일 게재됐다.

김정환기자



**예산군, 국립공주대학교와 공공급식 업무협약 체결** 예산군은 지난 13일 군청 상황실에서 국립 공주대학교와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공공급식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군과 국립 공주 대학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에 서생산한 농산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한 교류와 협력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대전대 LINC3.0사업단 ‘MZ세대 셀프리더쉽 기자체공영상 콘텐츠 제작’ 품평회** 대전대학교(총장 남상호) LINC3.0사업단(단장 이영환 산학부총장)은 지역기업과 연계한 문화디자인 기술개발 플랫폼 구축의 일환으로 문화디자인 기술 ICC 센터에서 ‘MZ세대들에게 사회경제적 활동에 필요한 문화적 가치제공영상 콘텐츠’ 시제품의 품평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전하나시티즌

### 2024시즌 유니폼 공개

대전하나시티즌이 글로벌 명문 구단으로 도약을 향한 목표와 의지를 담아낸 2024 시즌 유니폼<시즌>을 공개했다.

2024년부터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푸마(PUMA)와 새롭게 용품 후원 계약을 체결한 대전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제작한 2024 시즌 유니폼을 14일 공개했다.

유니폼 상의에는 대전하나시티즌의 훔구장인 대전월드컵경기장을 캐라주 형식으로 표현했고, 대한민국 국토의 중심을 연결하는 교통, 과학, 교육&행정의 도시 대전을 상징하는 패턴을 적용해 글로벌 명문 구단 도약을 통해 축구특별시 대전의 위상을 떨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홀 유니폼은 구단의 상징색인 초록색과 자주색을 원정 유니폼은 초록색과 흰색을 조화롭게 사용하여 제작되었으며 모든 유니폼에는 동일한 디자인 템플릿을 적용하여 통일성을 부여했다. 또한 푸마 캣로고와 구단 엠블럼은 볼륨감 있는 프린트 재질로 제작하여 입체감과 역동성을 살리며 완성도를 높였다.

디자인과 더불어 기능적인 면에서도 푸마의 혁신 기술을 도입해 스포츠 활동에 유리하고 높은 복원력의 스판덱스와 유사한 유니폼 원단을 사용하여 제작되었다.

김정환기자



**당진시노인복지관, 독거어르신 기정에 머핀 전달** 당진시노인복지관(최태선관장)은 14일, 햇빛찬 열린교실 지역아동센터로부터 2월 머핀을 후원받아 독거어르신 기정에 전달했다.



**온양5동 행복키움 ‘독거노인 생신 전자’ 사업 추진** 아산시 온양5동 행복키움주민단(공동단장 강연식, 인금선)이 13일, 2월 생신을 맞은 어르신 가정을 찾아 축하인사와 선물을 전달했다.



**청양군, 2024 새마을단체 단체장 이취임식 개최** 새마을운동청양군지회는 지난 13일 청양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지회장, 군협의회장, 부녀회장의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 당진시립중앙도서관, 김경동 작가의 유화 작품들

### 해오름 갤러리 2월의 작품 전시



당진시립중앙도서관 2층 로비 해오름 갤러리에서 2월의 전시로 김경동 작가의 유화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이번에 작품을 전시하는 김경동 작가는 대한민국미술대전 구상 입선, 충남 미술대전 2회 특선, 7회 입선 등의 수상 경력이 있으며, 6회에 걸친 개인전과 8회의 그룹전들을 통해 그의 작품을 전시했으며, 시립도서관에서도 2020년 해오름 갤러리에서 그의 작품을 전시한 바 있다. 이번 전시 작품은 ‘가을의 숲(복포 나옹미술대전 입선)’, ‘그들의 자화상(대한민국국전 입선)’, ‘지나온 시간(진주미술대전 입선)’, ‘지나온 시간의 궤적(대전 MBC 금강미술대전 특선)’을 포함해 총 17점이 전시된다.

김경동 작가의 작품은 3월 31일까지 전시되며, 해오름 갤러리에서는 앞으로 달마다 각기 다른 작가의 작품들과 그림책 원화 등이 전시될 예정이다.

당진=최근수기자

## KT&G, 글로벌 초슬림 담배 No.1 ‘에쎄’ 누적판매 9000억 개비 돌파

2014년부터 전 세계 초슬림 담배 판매량 1위 차지, 해외 시장 공략의 일등 공신



KT&G 사장 백복인) 초슬림 담배 브랜드 ‘에쎄(ESSE)’가 누적 판매량 9천억 개비를 돌파하며 글로벌 초슬림 담배 No.1의 자리 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1996년 11월 출시된 에쎄는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496억 개비, 해외에서 4051억 개비가 판매되어, 국내외 합계 판매량 9016억 개비를 달성했다. 지난해 에쎄의 연간 국내 판매량은 219억 개비, 해외 판매량은 289억 개비로 지난 2015년부터 해외 판매량이 국

에쎄는 KT&G의 해외컬련 판매량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해외 시장 공략의 일등 공신으로 글로벌 톱 티어(Top-tier) 도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같은 해외 컬련 판매 호조와 전년 대비 약 43%에 달하는 해외 NGP 스틱 매출 수량 고성장에 힘입어 지난해 해외 담배 판매 수량은 614억 개비를 기록, 사상 처음으로 600억 개비를 돌파했다. 에쎄의 브랜드 경쟁력은 공신력 있는 대외기관의 각종 수상을 통해서도 입증되었다.

국내에서는 한국농협회컨설팅(KMAO)이 주관하는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와 한국생산성본부(KPC)가 주관하는 ‘국가브랜드 경쟁력 지수(NBCI)’ 담배 부문에서 각각 10년, 14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

해외에서는 글로벌 마케팅서치 기관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Euromonitor International)로부터 2014년부터 초슬림(Superslim) 담배 부문 세계 판매 1위 브랜드로 선정됐다.

이정복기자

## 목원대학교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7회 연속 선정

### ‘2023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IEQAS)’ 인증대학

목원대학교(총장 이희학)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으로 7회 연속 선정됐다.

목원대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시행하는 ‘2023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IEQAS)’에서 인증대학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는 교육부가 국제화 역량이 높은 대학을 인증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고, 국내 학생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기준을 통과한 대학은 인증대학의 지위를 부여받고, 비자 발급 절차 간 소화 등의 혜택을 얻는다.

목원대는 이번 인증에서 학위과정과 어

내 판매량을 넘어섰다. 에쎄는 국내 출시 당시 담배 시장에서 주력이었던 레귤러 사이즈의 고리타분 담배와는 차별화된 슬림한 디자인과 저타르 제품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이후 냄새 저감 등 혁신적인 기술 적용과 소비자의 다양한 취향이 반영된 꾸준한 제품 확장으로 국내 담배 판매 1위 자리리를 2004년부터 20년째 지켜오고 있다.

2001년 중동과 러시아에 수출을 시작한 에쎄는 지속적인 시장 확대를 통해 전 세계 90여 개국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글로벌 초슬림 담배 판매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초슬림 제품으로 자리매김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 경쟁력을 입증한 에쎄의 성장세에 힘입어 KT&G의 지난해 해외컬련 사업부문 연간 매출액은 1조 1,394억 원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장학생(GKS) 학사과정 수학 대학 선정, 2023~2025년 정부조정외국인장학생(GKS) 대학원 과정 수학 대학 선정, 2024년 정부조정장학생(GKS) 우수교환학생 지원사업 선정 등을 통해 국제화 역량이 높은 대학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외에도 2024~2025년 정부초청외국인 유학수료증과 학점인정을 동시에 획득했다.

학위과정의 경우 필수지표인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율과 학점지표인 전략 및 선발, 유학생 지원, 유학생 관리 및 성과 등 핵심지표에서 기준을 통과했다.

어학연수과정 역시 필수지표인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율과 학점지표 등을 통과해 인증을 받았다.

이번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인증 기간은 다음달부터 2026년 2월까지이다.

목원대는 지난 2018년부터 관련 인증을 7회 연속으로 받으며 우수한 국제화 역량을 교육부로부터 공인받고 있다.

이외에도 2024~2025년 정부초청외국인 유학수료증과 학점인정을 동시에 획득했다.

한국타이어가 히노 ‘L 시리즈’에 공급하는 트럭·버스용(TBR) 타이어 ‘AH37’과 ‘DL11’은 우수한 내구성과 연비, 미يل리지 등을 겸비한 제품으로, 경제성을 중요시하는 현지 상용차 고객들에게 안성맞춤인 제품이다. 두 제품 모두 미국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이 고효율 에너지 및 친환경 제품에 부여하는 ‘스마트웨이(SmartWay)’ 인증을 획득했다.

특히 히노 ‘L6’ 및 ‘L7’ 모델에 장착되는 ‘AH37’은 차량의 연비 효율과 저연착륙 구름 저항을 낮춰 연비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3D 사이프(타이어 표면의 미세한 홈) 기술이 채택되어 우수한 견인력과 타이어 수명을 제공한다.

김태선기자

## 한국타이어, 토요타그룹 상용차 브랜드 ‘히노’에 신차용 타이어 공급

### 미국 환경보호청 ‘스마트웨이’ 인증 획득 친환경 제품으로 뛰어난 내구성과 연비, 마일리지 제공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대표이사 이수일, 이하 한국타이어)가 일본 토요타그룹의 상용차 브랜드 ‘히노(Hino)’의 중형 트럭 ‘L 시리즈’에 중장거리용 타이어 ‘AH37’과 장거리용 타이어 ‘DL11’을 신차용 타이어(OET: Original Equipment Tire)로 공급한다.

‘히노’의 ‘L 시리즈’는 2020년 북미 시장 출시 이후 미국과 캐나다 등 현지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며 최고의 중형 트럭 모델

한국타이어는 앞으로도 현지 상용차 고객을 겨냥한 연구개발(R&D) 역량 강화와 동시에 ‘스마트플렉스(SmartFlex)’, ‘스마트파인(SmartLine)’ 등 침대 TBR 기술력이 적용된 제품 출시를 통해 북미 상용차 타이어 시장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국타이어는 다양한 모델로 신차용 타이어 공급을 확대하며 토요타그룹과의 파트너십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캠리, 아발론, 코롤라, 시에나 등 베스트셀링 모델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토요타 브랜드 최초의 순수 전기 SUV ‘bZ4X’로 까지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며 최상위 수준의 타이어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다.

송병배기자



## 기고

여준 김천섭  
대전 제일고 배움터지킴이

## 졸업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다

의 지침에 의해 다른 학교로 이동하게 되면서 마지막 졸업식을 맞아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아침 출근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교통지도 활동을 하면서 정들었던 학교를 떠나게 됨에 잠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만남과 인연이란 누구와 어디서 어떻게 만나 같이 함께 했느냐에 따라 소중한 만남이 이를다운 인생의 한 페이지를 남길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본다.

대부분 학생들은 졸업은 이제 해방이다. 하고 와치고 교문을 나서면서 지겹고 즐거웠던 3년이란 세월을 되돌아볼 겨를도 없이 훌기분하다는 생각으로 머리에 노랑, 파랑, 빨강 둘감으로 머리 염색을 하고 나왔다.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요즘 졸업식장의 분위기는 개성을 가진 모델들의 연기처럼 나타나 자기의 새로운 끄기를 스스로 없이 뽐내 보이는 것을 보면서 자유란 무한함을 느끼게 하는 것 같아 보인다.

이렇게 세상은 끈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는 사이에 교복자율화, 머리자율화, 생각과 언행의 자유화를

결이 한편으론 교육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며 배움터 학교가 교육은 있으나 지켜지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로 우리의 교육을 맴들게 하지 않을까 걱정도 해 보았다.

오늘의 졸업식을 보면서 몇 년 전만 해도 졸업식 문화가 퇴폐하고 있어서는 안될 밀기루, 계단, 투척, 학교폭력 등으로 얼룩졌던 몇 년 전 언론에서 공문을 살던 생각이 난다.

하지만 요즘의 졸업식 분위기는 조용하고 차분한 속에서 교사, 학부형, 졸업생이 아무 걱정 없이 환한 미소와 축하 속에 행복한 시간으로 진행이 되었다.

필자는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하고 싶다. 졸업이란 한 단계 성숙해지고 상급 학교로 다시 옮겨지는 과정일 뿐이라고 말하고 싶다.

옛날에는 정문을 나서면서 교복을 찢고, 가방을 집어던지고, 모자를 벨도 차린 그릇된 옛 졸업식

분위기가 아닌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인식하는 졸업생들의 얼굴을 보면 시대에 변화의 물결이 다시 시작되는 구

나! 하는 안도의 박수를 보냈다. 필자가 더욱 기분 좋은 것은 졸업하고 교문을 나서는 몇 명의 졸업생이다가 와 그동안 감사 했다고 공손히 부모님과 인사를 하고 가는 모습에 배움터 지킴이로써 무한한 보람을 느꼈고,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 때 만났던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면서 안전을 지켜 주셔서 고맙다는 말한디에 지난 덤던 날, 출근 날에 힘들었던 시간이 나의 마음속에서 눈 녹듯 녹아 내리는 기분에 정말로 기습 뿌듯함을 느끼게 했다.

전국의 졸업생 여러분!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는 3월을 알차게 준비하고 또 다음 단계를 졸업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여 대한민국의 미래의 기둥으로 성장 하길 바라면서 큰 박수를 보냅니다.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졸업생 여러분! 또 학부형 여러분! 그리고 교단에서 열심히 가르치신 선생님들 존경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힘내고 새로운 상급학교에서 새로운 친구와 새로운 선생님들이 함께하는 신학기를 맞이하시길 기대해 봅니다.

## 사설

## 환경 파괴 일조한 명절 과포장 선물세트

가 많다.

또한 끓음으로 팔거나 보금제나 광포장재는 광포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단속의 의미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일단 기준은 포장 공간이 전체 제품 공간의 25%를 초과해서는 안되고 포장 횟수도 2차이내로 제한된다. 위반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떠나 구멍이 많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환경 운동 활동가의 토로다. 더욱이 과한 단속으로 모처럼 활기를 띤 명절 분위기에 친물을 끼얹기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명절 때는 평소보다 서너 배 정도의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재활용 분리수거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비단 명절 때가 아니라도 코로나 이후 온라인 쇼핑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터무니없는 과대 포장이 심각하다. 포장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기 위해 온라인 쇼핑 대신 직접 시장 장보기를 고수하는 사람들도 있다. 지구 환경을 생각해서 일회용품이나 포장재를 줄이기 위한 작지만 큰 실천이다. 지구 평균 기온 상승 마지막 선언인 산업화 이전 대비 1.5°C를 지키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이미 이를 넘은 날이 나올 정도로 지구온난화가 심각하다. 말뿐이 아닌 일상생활 속 작은 행동과 실천이 시급한 때다.

## 투표·용지 관리관 날인 등총선 사전 투·개표 관리 철저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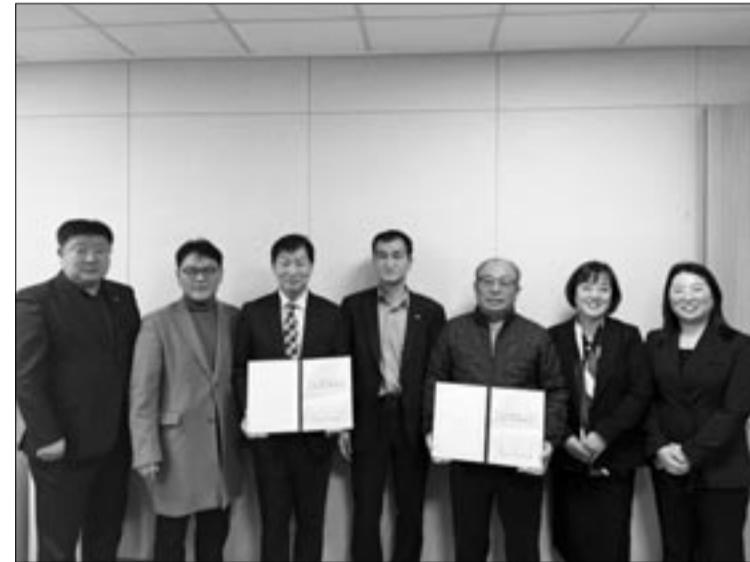
는 치명상을 입는다.

선관위는 현행 날인 인쇄 방식을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 많은 국민들이 사전투표용지 날인과 보관 관리, 개표 관리에 문제를 있다고 우려하는데, 그 방식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관리관이 직접 날인하려면 인력과 시간이 많이 든다고 하지만 이것은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그것을 빌미 삼아 사전 투표의 공정성이 의심받는 상황을 방지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10월 국정원과 선관위·한국인터넷 진흥원(KISA)이 합동 보안 점검 한 결과, 국제 해킹 조직의 수법으로 선관위 내부망을 해킹할 수 있고 사전 투표 및 개표 결과 조작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상황을 방지해서는 안 된다.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이 균열이 생긴다면, 사회적 갈등과 불신은 겉장을 수 없다. 선관위뿐만 아니라 국회도 선거 투·개표 과정에 의혹이 없도록 법적, 제도적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 예산군, 다함께돌봄센터 위수탁 계약 체결

다함께돌봄센터 1·2호점 및 3호점 위탁운영자 선정



예산군은 수탁자 선정 심의 위원회를 열고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예산군 다함께 돌봄 센터 1·2호점 및 3호점(가칭)의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하늘꿈사회적협동조합(대표 박태규), 우리의꿈 사회적협동조합(대표 박문수)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다함께 돌봄 센터는 몇몇이 가정 등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초등 돌봄 시각화 해소를 위해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며,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수탁자는 계약에 따라 3년간 다함께 돌봄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을 위탁받아 이용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1·2호점은 오는 3월 삽교읍 내포출장소 2층, 3호점은 오는 4월 내포 신도시 이지더원 3차 공동주택 단지 내에 각각 개소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관내 아동이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아동이 즐겁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예산군 조성을 위해 다양한 돌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예산 = 박제화 기자

\*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전투데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젊은생각·비른신문

2006년 5월 17일 창간

발행·편집인 김현정	회장 김성구	논설위원 김우영·김성식·김종복
전화안내 042)538-3030	기사제보 042)538-1601	팩스번호 042)538-2211
구독배달안내 042)538-1602	광고신청안내 042)538-1603	구독료 월 1만 5000원

등록번호: 대전기 00017 인쇄처: 동양일보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기고

여준 김천섭  
대전 제일고 배움터지킴이

## 졸업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다

의 지침에 의해 다른 학교로 이동하게 되면서 마지막 졸업식을 맞아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아침 출근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교통지도 활동을 하면서 정들었던 학교를 떠나게 됨에 잠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만남과 인연이란 누구와 어디서 어떻게 만나 같이 함께 했느냐에 따라 소중한 만남이 이를다운 인생의 한 페이지를 남길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본다.

대부분 학생들은 졸업은 이제 해방이다. 하고 와치고 교문을 나서면서 지겹고 즐거웠던 3년이란 세월을 되돌아볼 겨를도 없이 훌기분하다는 생각으로 머리에 노랑, 파랑, 빨강 둘감으로 머리 염색을 하고 나왔다.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요즘 졸업식장의 분위기는 개성을 가진 모델들의 연기처럼 나타나 자기의 새로운 끄기를 스스로 없이 뽐내 보이는 것을 보면서 자유란 무한함을 느끼게 하는 것 같아 보인다.

이렇게 세상은 끈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는 사이에 교복자율화, 머리자율화, 생각과 언행의 자유화를

결이 한편으론 교육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며 배움터 학교가 교육은 있으나 지켜지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로 우리의 교육을 맴들게 하지 않을까 걱정도 해 보았다.

오늘의 졸업식을 보면서 몇 년 전만 해도 졸업식 문화가 퇴폐하고 있어서는 안될 밀기루, 계단, 투척, 학교폭력 등으로 얼룩졌던 몇 년 전 언론에서 공문을 살던 생각이 난다.

하지만 요즘의 졸업식 분위기는 조용하고 차분한 속에서 교사, 학부형, 졸업생이 아무 걱정 없이 환한 미소와 축하 속에 행복한 시간으로 진행이 되었다.

필자는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하고 싶다. 졸업이란 한 단계 성숙해지고 상급 학교로 다시 옮겨지는 과정일 뿐이라고 말하고 싶다.

옛날에는 정문을 나서면서 교복을 찢고, 가방을 집어던지고, 모자를 벨도 차린 그릇된 옛 졸업식

분위기가 아닌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인식하는 졸업생들의 얼굴을 보면 시대에 변화의 물결이 다시 시작되는 구

나! 하는 안도의 박수를 보냈다. 필자가 더욱 기분 좋은 것은 졸업하고 교문을 나서는 몇 명의 졸업생이다가 와 그동안 감사 했다고 공손히 부모님과 인사를 하고 가는 모습에 배움터 지킴이로써 무한한 보람을 느꼈고,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 때 만났던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면서 안전을 지켜 주셔서 고맙다는 말한디에 지난 덤던 날, 출근 날에 힘들었던 시간이 나의 마음속에서 눈 녹듯 녹아 내리는 기분에 정말로 기습 뿌듯함을 느끼게 했다.

전국의 졸업생 여러분!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는 3월을 알차게 준비하고 또 다음 단계를 졸업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여 대한민국의 미래의 기둥으로 성장 하길 바라면서 큰 박수를 보냅니다.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졸업생 여러분! 또 학부형 여러분! 그리고 교단에서 열심히 가르치신 선생님들 존경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힘내고 새로운 친구와 새로운 선생님들이 함께하는 신학기를 맞이하시길 기대해 봅니다.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졸업생 여러분! 또 학부형 여러분! 그리고 교단에서 열심히 가르치신 선생님들 존경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힘내고 새로운 친구와 새로운 선생님들이 함께하는 신학기를 맞이하시길 기대해 봅니다.

## 시의 향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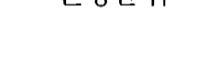
## 손영란 시인의 '베로니카 아뜨리에'

## 동백

오열하면 선열 떨구는  
그 호곡의 사연을 아시나요

끝내 울어 버린  
그 가슴의 소리를 아시나요.

## 시의 향기



## 이애순 시인의 '연보라 엽서'

## 가을여인

단발머리 하늘로  
마음 깨우는 바람 달아난다

나그네 길 뒤구는  
낙엽에 걸음 멈춘다

음악이 흐른다  
감겨진 눈망울

흐르는 눈물에 안겨 잠든다

## 시의 향기



## 장문자 시인의 '님 그리는 달술 연가'

## 에어라!

맘짓 몇것  
달래나 불까나 그려!

무엇이 그리 그리웠을까?

궁하면 通即久 일까?

화끈한 맘 풀어나 불까나

에어라!  
에어라!

## 시의 향기



## 전소연 무용가의 '얼쑤 좋다야!'

## 그리되게 하소서

위로 반기 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반기 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반기 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반고  
비움으로 채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 대전투데이

16 2024년 2월 15일 목요일

대전투데이

DT 대전투데이 연중 환경 캠페인

## 지구를 살립시다!



‘지구 온난화’ 지금 멈추지 못하면, 우리들의 내일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주 관 | 대전투데이

DTN  
대전투데이

후 원 |

한국장래인고용촉진공단 대전지사

한국전력공사  
대전충남본부

KHFC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충남지사

대생리글린  
대표이사 김경태

한국농어촌공사  
기술본부

농수산물유통공사  
대전충남지사

브이케이테크 주식회사  
[www.vktech.co.kr](http://www.vktech.co.kr)

(주) 제이콘  
JCON

충청환경에너지(주)

주식회사 레일웍스  
CONSTRUCTION & MAINTENANCE

INSGREEN 주식회사  
인스그린

More than Chemistry  
 롯데제과

Hanwha

TPE  
Technopark

대생리글린  
주식회사

제이엔텍 주식회사

주식회사 부성개발산업

에이치디포장건설주식회사